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研究調查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關係—統一政策

6. 25 動亂에 대한 再評價

研究執筆責任

金 德 信
(略歷) 서울대학교 法科大學 法學科卒(1958)
인하대학교 大學院 政治學科卒, 政治學碩士(1962)
韓國外國語大學 大學院, 政治學博士(1975)
韓國外國語大學 政治學教授(1967~)

刊行責任

金 德 信 (政策企劃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目 次

序 論	1
第1章 蘇聯 및 北傀의 南侵戰略	5
第1節 蘇聯의 極東政策과 韓半島	5
第2節 北韓의 南侵準備	13
第2章 韓國戰爭勃發을 前後한 韓美關係	25
第1節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25
第2節 撤軍을 둘러싼 韓美交涉	34
結 論 — 美國의 參戰要因	49



序 論

1950년에 발발한 韓國戰爭은 戰後 國際政治史에 重要な 轉換點을 마련해 주었다. 戰後 유럽에서 부터 머리를 들고 있던 冷戰 體制가 뚜렷한 形體를 갖추게 되고, 美蘇間에 치열한 軍備競爭이 벌어지게 하는 契機를 마련해 주었다. 이런 意味에서 韓國戰爭은 戰後의 國際關係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研究, 評價되어야 할 重要事件이다. 그것은 韓國戰爭을 계기로 表出된 東西兩陣營 특히 美國의 利害關係와 政策이 그 후 長期間 持續되어 왔고 오늘날까지도 그 影響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 동안 韓國戰爭 問題는 많은 國內外學者들의 研究對象이 되어 왔고, 그들의 研究結果는 놀랄만큼 훌륭한 業績을 쌓아 놓았다. 本稿는 그들이 分析·評價해 놓은 結果에 거의 全的인 도움을 받고 있다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나 韓國戰爭은 그 重要性에 비추어 몇번을 再評價·吟味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는 立場에서 이 問題에 接近하였다.

韓國戰爭은 복잡한 國內外的 要因들이 연루되어 있고, 韓國戰爭이 直接·間接的로 國際政治에 미친 影響은 극히 広範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視角에서 다룰 수 있는 問題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의식적으로 韓半島事態와 直接的인 關聯이 있는 問題만 다루었다. 특히 焦點을 둔것은 韓國戰爭의 勃發原因과 美國의 韓國戰爭參戰要因을 밝히려는데 있다.

韓國戰爭이 일어나게 된 原因은 蘇聯帝國主義의 支援을 받은 北韓의 韓半島 赤化政策에 의해 北韓이 韓國에 全面南侵한데 있었다는 것은 당시의 모든 狀況的 現實的 証拠가 立証해 주는 하나의 正說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전혀 根拠가 희박한 것이긴 하나 美國이 2次大戰當時 日本의 眞珠灣攻擊을 誘導하였듯이 韓半島에서 北傀의 侵略을 誘導하여 戰後極東政策遂行에 利用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說도 나돌았다. 심지어 北傀 및 이에 同調하는 者들은 韓國戰爭이 韓國側의 北侵에 의해 일어났다는 전혀 根拠없는 主張을 하고 있다.

北傀의 主張은 目的을 위해 手段方法을 가리지 않는 그들의 屬性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反論의 餘地도 없는 주장이다. 그러나 美國이 韓國戰爭을 誘導했을지도 모른다는 說은 비록 根拠가 희박한 것이긴 하나, 무엇인가 示唆해 주는 것이 있다. 그것은 美國이 韓國戰爭 勃發前에 나타냈던 여러가지 行態가 그만큼 不透明했고, 韓國을 거의 無防備狀態로 放置한채 撤軍을 斷行했던데 비해 韓國戰爭이 勃發했을때의 対応措置 즉 韓國戰爭介入은 놀라울 정도로 迅速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때 美國이 韓國戰爭을 誘導했다는 証拠는 찾을수 없으나, 적어도 美國의 韓半島政策이 韓國戰爭을 誘發하는데 큰 役割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美國의 韓半島政策이 韓國戰爭에 적지 않은 影響을 주었다고 한다면 당시의 美國의 政策을 다루는 것이 韓國戰爭分析의 出發點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本稿에서는 韓國動亂의 要因을 分析함에 있어서 우선 蘇聯의 極東政策과 北傀의 南侵準備 그리고 北傀·蘇聯間의 接觸過程을 다루어 韓國戰爭의 勃發經過를 찾아 보았다. 다음으로 北傀의 南侵을 고무해준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로서 당시의 美國의 韓半島政策을 다루었다.

美國의 韓半島政策을 分析하는데 있어서는 美國政府 및 議會 등의 動向과 聲明, 駐韓美軍撤収를 둘러싼 韓美兩國間의 交涉經過등을 中心으로 하였다. 여기서는 美國의 對韓政策이 어떤 假定위에 設定되어 있었는가, 그것은 어떤 形態로 表現되었으며 共產側의 政策에 어떤 影響을 주었는가를 밝히려 하였다. 특히 이 分析過程에서 留意한 것은 가능한한 美國이 公開한 政策과 公開치 않은 政策을 区分하려 한 것이다. 그 理由는 戰後의 流動적이고 不透明한 東西關係에서 北傀側이 南侵을 決行하기 위해 美國의 對策을 評價하는데 있어서는 美國이 外面에 들어낸 여러가지 聲明이나 움직임을 蓋然的으로 評價하는 수 밖에 없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당시의 美國의 行態는 北傀側으로 하여금 상당히 樂觀적인 評價를 하게 하였음에 틀림없으며, 그것은 北傀의 南侵으로 나타났다.

美國은 駐韓美軍撤収後의 美國의 對韓政策에 대한 韓國側의 悲觀과 北傀側의 樂觀에도 불구하고, 韓國戰爭이 勃發하자 놀라울 정도로 迅速히 介入하였다. 그렇다면 韓國戰爭에 대한 美國의 介入은 予定된 行動이었느냐 또는 事後措置였느냐는 점이 먼저 糾明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美国이 韓国戦争에 参戰하게된 要因이 무엇인가 하는 問題가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 問題에서는 특히 美国의 韓国戦争参戰決定에서 美国의 韓国自体에 대한 利害關係가 어느 程度의 比重을 차지하였으며, 韓國의 对美要求가 어느정도 反映되었느냐는 点이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이런 点들이 美国의 对韓政策基調, 韓美紐帶關係의 基盤 및 限界点을 찾아 보는데 필요한 指標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第 1 章 蘇聯 및 北傀의 南侵戰略

第 1 節 蘇聯의 極東政策과 韓半島

西歐學者들은 韓國戰爭이 北傀를 조종하여 蘇聯이 惹起시킨 戰爭 이라는데 대체로 一致된 意見을 보이고 있다. 蘇聯이 韓國戰爭을 惹起시킨 原因에 대해서는 蘇聯이 美國과의 全面戰을 위해 美國의 注意를 다른 곳으로 誘導·分散시키려 했다는 “注意를 다른 곳으로 쏠리게 하는 策略說”(the 'Diversionary move' interpretation), 虛点만 노리는 蘇聯이 韓國을 虛点으로 보고 占領하러 했다는 “虛点攻擊說”(the 'Softprobing' interpretation), 西方陣營의 反應을 보기위해 南侵했다는 “抵抗力實驗說”(the 'Testing' interpretation), 共產陣營의 힘을 과시하여 歐亞의 反共勢力을 弱화시키려 했다는 “武力示威說”(the 'Demonstration' interpretation), 戰略的 必要에서 南侵했다는 “蘇聯極東戰略說”(the 'Soviet Far Eastern Strategy' interpretation) 등의 여러가지 理論이 있다. 1)

이 같이 蘇聯의 韓國戰爭惹起要因에 대한 理論이 區區한 것은 韓國戰爭이 2次大戰後 美蘇兩大勢力間에 일어난 最初의 武力衝突이었기 때문에 蘇聯의 政策的 立場에 대한 解釋이 그만큼 어렵고, 2) 蘇聯의 政策은 秘密主義를 特徵으로 하기 때문에 具體的 資料보다는 狀況的 資料에 많이 依存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北傀가 6.25 南侵을 敢行하게 된 要因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南侵은 蘇聯과 北傀中 누가 主導했는가를 再評價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당시의 狀況으로 보아 南侵을 누가 主導했는지를 断定짓는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南侵을 決定한 것은 蘇聯이었을 可能性이 크다. 그 理由는 解放直後の 金日成集團의 勢力으로 보아 다른 國家에서 처럼 게릴라戰術을 사용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全面戰을 감행할만한 能力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北韓에게 蘇聯은 全面南侵을 감행할수 있는 準備를 갖추어 주었다.

蘇聯의 韓半島政策을 보기 위해서는 帝政러시아의 極東政策에서 그 뿌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16世紀末부터 極東進出政策을 취하기 시작하여 1905年 露日戰爭에서 敗戰할때까지 中国本土, 滿州, 韓半島에 걸쳐 방대한 勢力圈을 形成하려는 目的에서 美英日勢力과 角逐戰을 벌였다. 특히 韓半島에서는 1898年 遼東半島租借前에 韓半島内の 不凍港의 軍事基地를 획득하려 시도하다가 英日兩國의 強力한 武力示威때문에 拋棄하였다.

蘇聯은 이러한 帝政러시아의 極東政策을 계승하여 일찍부터 韓半島가 極東에서의 勢力關係에 決定的인 影響을 미치는 要衝이라는 點에 注意를 기울이고 있었음에 틀림없을 것으로 보인다. 蘇聯이 帝政러시아의 政策을 繼承했으리라는 것은 러시아革命의 性格에서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러시아의 共產革命이 단순히 마르크스主義의 實現이라는데만 目的이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러시아

革命은 少数의 權力指向의 暴力革命家들의 政權爭取를 위한 革命이
있다는 側面이 強하다. 그들은 後進러시아를 改革하여 世界最強國
으로 成長시키려는 國家主義者들이었고, 이러한 目的을 위해 마르크
스를 利用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革命後 蘇聯은 帝政러시아
가 추구해온 對外膨脹政策을 方式만 달리한채 그대로 계승하였으며,
韓半島의 戰略的價值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해도 좋다.

兩次大戰사이의 蘇聯은 西歐諸國과 日本의 牽制政策때문에 現狀維
持政策을 취했으나 帝政러시아가 獲得한 既存利權은 拋棄하지 않았
다. 第2次大戰은 蘇聯이 現狀維持政策에서 帝國主義政策으로 轉換
하는데 좋은 機會가 되었다. 蘇聯은 1939年8月 獨蘇不可侵條約
을 締結하고 폴란드分割協定을 締結하여 폴란드를 分割占領한 것을
時點으로 하여 膨脹政策을 取하기 시작하였다. 1939年11月에는
핀란드를 攻擊하고, 1940年6月에는 불가리아로부터 北사라비아 및
北부코비나를 割讓 받았으며, 1940年7月에는 발틱3國을 併합한데
이어, 同年9月에는 핀란드로부터 폴카라基地를 租借하였다.

1941年6月 獨逸의 攻擊을 받아 聯合國의 一員으로 參加하게
되고 1943年初부터 戰勢가 有利해지자, 蘇聯은 다시 勢力圈形成에
노력하였다. 1944年3月에는 루마니아를 攻擊하고, 同年 9月
에는 불가리아를 占領하는등 발칸地域諸國에 進出하여 共產政權을
樹立하고 勢力圈을 形成하여 놓았으며, 1945年6月에는 우크라이나
를 併합하였다.

이같이 蘇聯은 이미 第2次大戰의 勃發과 함께 歐洲에서부터 帝

國主義政策을 追求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보아 蘇聯은 極東地域에 대해서도 일찍부터 勢力擴張의 機會를 노리고 있었음에 틀림없는 것 같다. 그 機會를 提供해 준 것이 美國에 의해 제기된 蘇聯의 對日參戰問題였다. 蘇聯은 對日參戰問題가 提起되면서부터 極東에서 蘇聯이 획득할수 있는 利得에 關心을 나타냈다. 1945年2月8日 알타(yalta)會談에서 스탈린은 對日戰參戰의 代價로 大連港의 使用權을 비롯하여 滿洲里와 哈爾濱과 旅順, 大連, 哈爾濱과 니콜로스크, 우수리스크, 하바로프스크와 우라디보스톡을 連結하는 鐵道利權을 要求하면서, 萬一 이들 條件이 受諾되지 않는다면 蘇聯이 日本과 戰爭해야 할 理由를 蘇聯國民에게 說明하기가 困難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³⁾ 이것은 事實上 滿洲에 대한 蘇聯의 支配權을 認定하도록 要求한 것이었다.

韓半島問題에서는 1943年 11月30日의 카이로(Cairo)宣言에서 適當한 時期에 獨立될 것이라는 合意가 있었을 뿐 애매한 狀態로 남아 있었고, 루즈벨트美大統領에 의해 信託統治의 可能性이 檢討되었을 정도였다. 韓半島의 信託統治問題는 그후 알타會談과 1945年7月의 포츠담(Potsdam)會談에서 重要치 않은 問題로서 協議되었을 뿐이다. 蘇聯으로 보아서는 韓國問題가 애매한 채로 남아 있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蘇聯이 韓半島를 占領할 수 있는 여지를 그만큼 많이 남겨놓기 때문이다. 蘇聯으로서의 韓國問題의 處理보다는 美國의 關心度를 測定하는 것이 훨씬 重要한 일이었다. 따라서 스탈린은 포츠담會談에서 美國의

韓國에 대한 軍事作戰計劃을 打診하였으며, 美國으로부터 日本本土上陸前에는 韓國에 進擊할 가능성이 없다는 答弁을 얻어내어 韓半島를 蘇聯의 作戰範圍에 包含시켰다. 4) 이어 蘇聯은 1945年 8月 8日 對日戰에 參戰한지 불과 며칠後인 8月 12日에는 雄基와 羅鎮에 軍隊를 上陸시켰고 38線以南에까지 進軍하였다.

蘇聯의 韓半島進出政策은 이미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38線을 境界로 한 美蘇兩軍의 韓半島分割占領은 蘇聯으로 보아서는 더할수 없이 만족할만한 成果였다. 당시 蘇聯은 東歐諸國을 共產圈化시키는 作業을 進行中이었고, 中國大陸에서의 國共對立의 推移가 不明確한 속에서 旧帝政러시아가 極東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이상의 勢力圈을 차지하였다. 韓半島問題에 있어서도 美國과 對等한 發言權을 確保할수 있게 되었다. 불과 數週日前에 열렸던 포츠담會談當時의 極東問題에 대한 蘇聯의 發言權과 日本降伏後의 發言權은 比較도 될 수 없는 큰 差異가 생긴 것이다.

1945年 12月 16日에 개최된 모스크(Moscow)會談은 이러한 變化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모스크會談에서는 美蘇共同委員會를 構成하여 이 委員會로 하여금 韓國의 信託統治 및 韓國臨時政府樹立을 위한 모든 措置를 강구하도록 決定함으로써 蘇聯은 韓國問題 處理에서 美國과 同等한 決定權을 保障받았다. 이로써 蘇聯은 韓半島進出을 위한 第1段階의 目的을 達成하였다.

美蘇共同委員會는 1946年 3月 20日에 第1次會談이 開催되었고, 1947年 5月 21日에 第2次會談이 開催되었다가 7月初에는 完全決

裂되었다. ⁵⁾ 美国은 美蘇共同委員會가 失敗로 돌아간 뒤 1947年 8月 27日 4大国会談을 제의했으나 蘇聯側이 拒否하자, 1947年 9月 17日 韓國獨立問題를 유엔總회에 上程하였다. 이에 따라 유엔總회는 1947年 11月 14日 韓國統一政府樹立을 위한 유엔韓國臨時委員會를 構成하기로 決議하였다. ⁶⁾ 그러나 韓國統一政府樹立을 위한 南北韓 總選舉를 실시하려던 유엔의 努力은 蘇聯에 의한 유엔韓國臨時委員會의 入北拒否로 實現을 보지 못하고, 1948年 5月 10日 南韓单独選舉를 實施하여 同年 8月 15日 大韓民國政府가 韓半島에서의 唯一 合法政府로 樹立되었다.

蘇聯은 北韓에 進駐하면서부터 東歐諸國共產化의 先例에 따라 韓半島全体 또는 적어도 北韓地域에 만이라도 共產政權을 수립하여 蘇聯의 勢力을 扶植하려는 뚜렷한 目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美蘇共同委員會의 開催로부터 北韓政權樹立까지는 그 必然의 結果였다. 美蘇共同委員會에서 蘇聯側代表 슈티코프(Shtikov)는 第1次會談時 부터 韓國臨時政府樹立을 논의하기 위한 韓國의 協議對象選定問題에서 모스크바會談 決定에 反對하는 政黨이나 個人은 協議對象에서 除外할 것을 고집하였고 第2次會談에서도 마찬가지로 信託統治에 한번이라도 反對한 일이 있는 政黨이나 個人은 協議對象에서 除外시킬 것을 계속 고집하여 會議을 決裂로 이끌었다.

蘇聯이 信託統治를 결정한 모스크바 決定을 내세워 協議對象選定問題를 주요 争点으로 만든데는 몇가지 계산에 따른 것 같다. 첫째로 당시 韓國內의 共產主義者들과 그 組織은 극히 微弱했기 때문에

信託統治에 反對하던 民主勢力을 協議對象에서 排除시키거나 또는 最大限으로 弱화시켜 信託統治가 實現될 경우 共產主義者들이 主導權을 잡게 하려 했다는 點이다. 둘째는 會談을 長期化시키고 蘇聯의 決意를 과시함으로써 弱體인 韓國內 共產主義者들을 고무하고 共產主義組織을 強化하기 위한 時間을 벌려고 하였다는 點도 없지 않다. 셋째는 지나치게 노골적인 韓半島赤化慾을 露出할 경우, 中國事態에 대해 非介入政策으로 기울고 있던 美國의 消極的 極東政策에 變化를 유도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韓半島의 信託統治를 表面에 내세워 美國을 宥和시키려 했을 것이라는 點이다. 넷째는 당시 美國의 입장으로서 反託論者들을 協議對象에서 除外시키자는 蘇聯側 主張을 受諾하기가 困難할 것으로 보고, 美蘇共同委員會 決裂의 責任을 美國에 씌워 南北分斷과 北韓政權樹立을 正当化시키려 했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사실상 蘇聯은 韓半島問題에 대해 美國과 同等한 發言權을 갖게 되자 1948年 9月 9日 金日成政權을 세울때까지 이미 實現可能性이 없는 것으로 입증된 韓國內의 信託統治를 내세워 美蘇共同委員會를 決裂로 이끄는 한편 美蘇兩軍의 撤収를 주장하여 蘇聯이 平和的 意圖를 가진듯이 위장하면서 실제에 있어서는 分散되고 미약한 共產分子들을 金日成을 中心으로 結集 強化시켜 나가는 政策을 取했다.

蘇聯이 美蘇兩軍의 同時撤収를 주장하기 시작한 것은 第2次美蘇共同委員會가 진행중이던 1948年 8月 26日 蘇聯首席代表 슈티코프가

이 문제를 제의하면서 부터이다. 이 提案은 全体韓國問題의 一部로 다루려는 美國에 의해 拒否當했다. 7) 蘇聯의 外軍撤収主張은 韓半島를 蘇聯의 勢力下에 두려는 또다른 政策的·布石이었다.

第2次大戰後 蘇聯의 對外膨脹政策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特徵중의 하나는 蘇聯의 共產化에 蘇聯軍의 直接投入을 避하고 背後에서 操縱·支援만 한다는 것이다. 關聯國家의 共產同調者들을 武装·活用하여 蘇聯의 實質的인 勢力伸張을 가져 오려는데 目的을 둔 이 政策은 오늘날까지 많은 成功을 거두었다. 蘇聯의 美蘇共同委員會 決裂 誘導와 美蘇兩軍撤収提案은 이러한 政策實現의 補助手段이었던 게 분명하다.

蘇聯의 美蘇兩軍撤収提議는 당시 美蘇兩軍의 駐屯이 民族分裂·南北分斷의 要因이 된다고 보던 韓國民의 民族感情에 영합할 수 있는 길일뿐 아니라, 마치 蘇聯이 韓國獨立을 韓國人들 自身の 손에 맡기려는 平和的 國家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民族陣營의 分裂과 混亂을 조장하고 그 사이에 共產主義者들을 結集 強化하여 韓半島의 共產化를 달성하려 하였다. 8) 사실 당시 民族陣營은 團結하지 못하고 右派, 中道派 등으로 分裂되어 갔으며 外軍撤収, 南北協商을 贊成하는 사람도 많았다. 또한 蘇聯의 政策目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韓國問題를 國內問題化시켜 그들의 目的에 방해가 되는 外勢의 介入路를 봉쇄시킬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蘇聯은 美國뿐 아니라 유엔까지도 韓國問題에서 排除시키려 하였다.

이 때문에 美蘇共同委員會가 교착된 후 美國이 韓國問題를 유엔에

이 관하기로 결정하고, 마셜(Marshall) 國務長官을 통해 韓國의 即時 獨立과 美蘇兩軍의 早速한 撤収를 내용으로 하는 決議案을 1947年 9月 23日 유엔 總會에 제출하여 同年 11月 14日 採択되었으나, ⁹⁾ 蘇聯代表 비신스키는 美國案에 反對하면서 兩軍의 無條件撤収를 거듭 주장하였다. ¹⁰⁾ 원래 蘇聯이 제의했던 撤収問題인데도 蘇聯이 유엔 決議에 反對한 것은 韓國問題로부터 유엔을 分離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蘇聯은 이같이 韓國問題를 國內問題化시켜 美國이나 유엔의 參與를 봉쇄시키려 시도하는 한편 共產統一의 基礎勢力으로서 金日成勢力을 成長시켜 나갔다. 蘇聯은 蘇聯에서 키운 金日成一派를 1945年 9月 21日 入北시켜, 당시 共產黨의 中心勢力인 南勞黨등 諸派를 金日成의 支配下에 服屬시키거나 追放하여 金日成을 중심으로 黨組織을 整備해 나갔으며, 金日成政權의 樹立을 위한 準備作業에 노력하였다. 이런 予定된 코스에 따라 蘇聯은 1948年 9月 9日 소위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탄생시켜 놓았다.

第 2 節 北韓의 南侵準備

6·25 南侵을 蘇聯과 北韓中 어느쪽이 먼저 제기하였는가를 밝혀 내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蘇聯의 政策으로 보아 韓國戰爭이 蘇聯의 共產膨脹政策의 일환으로 야기된 戰爭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蘇聯은 앞서 보았듯이 유엔이 유엔 韓國臨時委員團을 구성하여

韓國의 總選舉를 實施하기로 결정하고 韓國政府樹立을 후원할때까지 는 韓國問題를 美國 및 유엔으로부터 分離시켜 韓國內의 混亂을 조 성하여 共產化를 이루려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試圖가 失敗로 돌아가고 유엔이 깊이 介入하게 되자, 일단 北韓地域만이라도 蘇聯 의 勢力圈으로 확보하기 위해 金日成政權을 樹立시켰다.

南北分断이 불가피한 現實로 받아들여지게 된 이후 蘇聯과 北 韓은 共產統一을 위한 準備를 착착 진행시켜 나갔다. 共產側이 南侵을 앞두고 추진해온 事前作業은 대체로 極東共產勢力間의 連繫 強化, 南侵을 위한 北韓의 軍事力增強, 美國으로부터의 韓國의 隔離 南韓內의 共產侵略與件造成등에 重點을 두었다.

먼저 共產勢力의 連繫強化努力은 蘇聯·北韓·中共間의 南侵戰略, 中共 및 蘇聯의 對北韓支援計劃등을 協議, 決定하려는데 目的을 둔 것이었다. 蘇聯은 1948年 12月 15日 北韓駐屯蘇聯軍의 撤收完了를 발표한 직후 金日成을 蘇聯으로 소환하였다. 金日成은 1949年 2月 2日 平壤을 出發하여 4月 7日에 돌아 왔다. 金日成은 그동 안 스탈린과 會見하고, 3月 17日 蘇聯外相비신스키와 經濟文化協定 을 비롯하여 몇가지 協定을 締結하였다. 11)

그밖에 北韓과 蘇聯間에 軍事協定을 締結했으리라는 推測¹²⁾ 과 그렇지 않다는 主張이 있다. 蘇聯과 北韓間에 相互防衛條約이 締 結되지 않았으리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그 理由를 다음과 같이 보 고 있다. 즉 北韓·蘇聯軍事條約은 韓國政府로 하여금 北韓이 全 面南侵을 하려는 것으로 믿게 만들어 美國에게 軍事援助條約締結을

요구하게 할 것이며, 그결과 韓美防衛條約이 체결된다면 그것은 蘇聯의 計劃에 큰 打撃이 될것으로 보았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다.¹³⁾ 또한 北韓·蘇聯軍事條約이 締結되지 않은 대신 北韓과 中共間에 그런 條約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 근거로서는 1949年5月5日字 自由中国政府機關紙에 中共(당시 東北人民政府)은 “1949年3月17日 蘇聯保護下에 있던 北傀政權과 相互防衛條約을 締結했다”고 보도했는데, 同條約內容에는 다음과 같은 內容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¹⁴⁾ 中共은 여하한 攻撃으로부터도 北韓을 防衛하며, 兩当事國中 一方이 攻撃당할때에는 共同으로 擊退시키고, 中共은 1949年7月1日부터 1950年8月30日사이의 期間에 北韓에 대해 武器, 裝備, 軍隊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北韓·蘇聯間에 秘密軍事協定이 締結되지 않았다는 뚜렷한 証拠는 없다. 北韓·蘇聯間에 軍事同盟이 締結되었던 않았던間에 金日成과 스탈린間에 南侵 및 蘇聯의 支援問題에 대해 많은 具體的論議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蘇聯新聞들은 이제 韓國民들은 蘇聯으로부터 모든 가능한 支援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하여 兩者間에 여러가지 問題에 대한 協議, 合意가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¹⁵⁾ 또한 후르시초프는 그의 回顧錄에서 金日成과 스탈린과의 會談時 金日成은 스탈린에게 南侵計劃을 支持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스탈린은 보다 具體的인 計劃을 다시 마련해 오도록 金日成을 說得했다고 하면서, 韓國戰爭을 일으킨 장본인은 金日成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⁶⁾

이로부터 金日成이 南侵을 먼저 發說했는지 또는 蘇聯이 金日成에

게 그 責任을 뒤집어 씌운 것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스탈린과 金日成間의 會談에서 南侵計劃이 상당히 具體적으로 論議된 것은 분명하며, 또한 中共의 支援方案이 강구되었다는 것도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이 當時는 아직도 中國大陸에서 國共戰이 進行중에 있었기 때문에 蘇聯은 南侵計劃을 일시 留保하고 北韓으로 하여금 南侵을 위한 準備만 갖추도록 한 것 같다. 그것은 1949年 10月 1日 中共이 中華人民共和國 樹立을 선포한후 蘇聯·中共·北韓間에 活潑한 接觸과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毛沢東은 中共政權 成立後 얼마 지나지 않은 1949年 12月 7日 모스크로를 訪問하였는데 이때 毛沢東과 스탈린 사이에 北韓의 南侵에 대한 充分한 協議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7) 뒤이어 1950年 1月 21日 蘇聯을 방문한 中共外相 周恩來는 蘇聯과의 사이에 中蘇友好同盟 및 相互援助條約과 그에 부수된 3個協定을 체결하였다. 18)

이 條約을 보면, 毛沢東·스탈린 會談에서는 對日講和를 앞두고 美國의 對日政策에 대처하는 問題가 많이 論議되었을 것으로 보이나, 北韓의 南侵計劃에 대한 協議도 重要問題였을 것이 분명하다. 그 理由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北傀·蘇聯의 南侵計劃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中共軍에 편입되어 있는 韓人部隊의 戰力이 반드시 必要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蘇聯은 共產化를 위해 蘇聯軍을 直接投入하지 않는다는 政策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事態에 대비해서 直接支援에 나설 수 있는 中共을 필요로 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蘇聯은 韓半島에서

戰爭을 일으켜 自由世界의 힘을 分散시킬수 있을 뿐 아니라 中国大陸을 장악한 中共과 北韓을 蘇聯의 勢力圈內에 잡아 두기 위해서라도 南侵計劃에 中共을 참여시키기를 바랐을 것이라는 点이다.¹⁹⁾ 세계, 中共도 南侵計劃을 支援할만한 충분한 理由가 있었을 것이란 点이다. 그 중 하나는 1950年代初에도 台湾을 基点으로 国府軍의 本土收復抗爭이 中国本土에서 계속 進行되고 있었고 美国의 意圖가 不明確한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²⁰⁾ 美国의 힘과 注意를 分散시킬수 있는 韓國戰爭에 반대할 理由가 없었다는 것이다. 韓國戰爭에 中共軍司會官으로 參加한 林彪도 1965年 「人民戰爭勝利萬歲」라는 論文에서 韓國戰爭은 베트남, 라오스, 쿠바, 인도네시아, 알제리아紛爭과 함께 “帝國主義의 兵力을 한 곳에 膠着시켜 크게 弱화시키는 戰爭”이었다고 評한 바 있다.²¹⁾

또한 어떤 사람은 蘇聯과 中共이 外部의 援助가 없을 경우 北韓이 勝利할 것으로 믿고 北韓의 南侵에 동의했으며, 美国이 介入할 경우에만 中共軍이 蘇聯空軍의 保護下에 韓國戰爭에 參戰하기로 合意했다고 지적하고 있다.²²⁾ 또 다른 사람은 中共이 萬一 北韓의 南侵이 失敗할 경우 中共軍 10萬名을 投入하여 北韓을 지원한다는 보장을 이미 1950年初에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²³⁾

이 같이 韓國戰爭은 蘇聯·中共·北傀의 緊密한 相互連繫속에서 惹起된 것이다. 毛沢東의 蘇聯訪問後 6.25南侵이 감행될 때까지 數個月은 그들간에 合意된 計劃에 따라 開戰의 機會만을 기다리던 時期였다고 할 수 있다.

蘇聯代表마리크(Malik)는 中共外相 周恩来가 1950年1月8日 유엔에 中国代表權問題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1月10日 安全保障理事會에서 自由中国이 逐出될 때까지 會議에 參席치 않겠다는 通告를 하여 유엔의 權威를 실추시키려 하였다. 또한 모스크코當局은 1950年初부터 北韓, 日本, 美国 등지의 蘇聯外交使節을 召喚하였다.²⁴⁾ 中共·蘇聯軍事同盟後 蘇聯의 對中共軍事援助가 급증되었다. 1948年가을부터 中共軍에 편입되어 있던 韓國人部隊가 北韓으로 移動하기 시작하여 1950年初에는 그 移動이 加速化되었다. 1950年6月末에는 이미 林彪揮下의 中共軍第4野戰軍 約60萬名이 韓滿國境을 向해 進軍하고 있었다.

한편 南侵을 위한 北傀의 軍事力增強計劃도 予定대로 進行되어 나갔다. 北韓의 南侵이 計劃的이었다는 것은 北傀軍體制가 攻擧戰力體制로 되어 있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韓國軍參謀總長은 이미 1950年1月 北傀의 計劃이 完了되어 그 實踐은 오직 時間問題라고 믿어진다는 事實을 유엔韓國委員團에 報告하였으며,²⁵⁾ 또한 유엔韓國委員團도 同委員團 軍事監視班 戰國開始 48時間前까지 38線을 直接 視察한 것과 戰局 및 그 結果를 土台로 “北韓政權은 南韓에 대하여 잘 計劃되고 協調된 全面的 侵略을 實行中”이라는 報告書를 第5次 유엔會談에 提出하였다.²⁶⁾

蘇聯과 中共은 北韓의 攻擧戰力確保를 積極 支援하였다. 蘇聯은 이미 1948年2月8日에 소위 朝鮮人民軍을 創設하였고, 同年12月25日 蘇聯占領撤軍完了를 발표하기에 앞서 그들의 重要裝備와 軍

需品을 北傀軍에 이양하였다. 北傀政權이 成立된 後 蘇聯은 國防 相블가닌 (Bulganu) 의 주재하에 1948年 12月初 일련의 高位軍 事會議를 열고 北傀軍을 強化하기 위해 特別軍事使節團을 구성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0名이상의 高位軍指導로 구성된 이 使 節團은 12月末 平壤으로 向發하여 슈티코프駐北韓蘇聯大使의 指揮 下에 들어 갔다. 27)

特別軍事使節團의 目的은 北傀軍의 裝備現代화와 中共軍에 屬해 있는 韓國人部隊의 北傀軍編入을 통한 南侵戰力の 強化에 있었다. 모스크바會議에서 결정된 바에 따르면 中共軍에 속해 있는 約 2万 내 지 2万 5千名の 韓國人部隊를 北傀軍에 배치하여 6個精銳步兵師團 을 창설하는 동시에 8個前方師團과 8個予備師團을 北傀軍이 保有 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28) 裝備面에서는 500臺의 戰車를 가진 2個機甲師團을 창설하며 이를 위해 新型 T 34 中戰車와 重戰車를 供給하기로 했다 한다. 29)

한편 中共은 中共軍에서 實戰經驗을 쌓은 韓國 將兵들을 北韓에 돌려주어 北傀軍의 核心을 이루도록 協力함으로써 北韓의 대규모 軍事援助를 제공했다. |北韓의 南侵後 駐韓유엔軍 作戰報告書는 捕虜 中の 相当數가 滿洲에서 訓練을 받거나 또는 中共軍에서 服務하 고 있었다. 敵 第 5, 13, 15 師團과 獨立 第 766 部隊의 兵士 특히 將校와 下士官은 中共軍에서 訓練을 받거나 實戰의 經驗을 가지고 있다 "고 밝히고 있다. 30) 이들 中共軍所屬 韓國人部隊가 北傀軍에 編入되기 시작한 것은 1948年 가을부터이며, 1950年初에는 中共

軍第4野戰軍에 속해 있던 韓國人部隊들이 더욱 急速히 北韓으로 移動하여 北傀軍의 精銳戰團을 이루었다. 北韓이 南侵했을 당시 이들의 數는 北傀軍總兵力의 約 30%以上에 해당하는 4万내지 6万명에 달하고 있었다.³¹⁾

이러한 蘇聯 및 中共의 적극지원하에 北韓은 南侵當時 다음과 같은 莫強한 攻擊戰力을 保有하게 되었다. 즉 “人民軍 1,2,3,4, 5,6,10,12,13,15의 10個步兵師團, 第105戰車師團(第16,17兩戰車師團은 開戰直後 新編成된 것이다) 高射砲聯隊를 비롯한 各直屬部隊, 第1,3,7의 3個 38警備旅團, 韓滿國境警備隊, 鐵道警備師團 등 步兵約 12万, 警備隊約 3万4千(保安隊除外) 合計 15万4千이고 그 裝備는 戰車 242台, 사마호트 208台, 120耗砲 156門, 82耗砲 1,053門, 76耗砲 668門, 45耗砲 663門이었다. 이밖에 飛行師團에 YAK-9, IL-10, 其他機 211台, 飛行兵 約 2千, 海軍에 艦艇 大小 約 30隻, 陸戰隊를 포함한 海軍兵力 約 万名을 합하여 總兵力은 約 20万에 達”하였다.³²⁾ 北傀軍 各單位 陸軍部隊의 火力은 1945年 베르린을 攻略한 蘇聯軍部隊의 火力과 거의 비슷한 水準이었다. 北傀政權이 수립된지 불과 2년도 안되는 期間에 北傀軍이 이만한 軍事力을 保有할수 있었다는 것은 北傀의 南侵을 지원하려는 蘇聯, 中共의 決意와 計劃이 어느정도 強했는가를 잘 나타내 준다.

이같이 蘇聯과 北傀는 共產主義者들간의 連繫強化와 北傀의 軍事力增強에 노력하는 한편 韓國으로부터의 美國의 隔離와 韓國內의

侵略与件造成을 기도하였다.

蘇聯은 앞서 보았듯이 美蘇共同委員會 당시 美蘇兩軍의 無條件撤収를 주장한 이래 美国이나 유엔이 韓國問題에서 손을 떼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美国이 韓國問題를 유엔總會에 移管시킨 후에도 蘇聯의 일관된 입장은 韓國으로부터의 美国의 隔離였다. 이런 政策에 同調하여 金日成一派도 国内에서 계속하여 美蘇兩軍의 撤収를 주장하는 한편 民族陣營을 分裂, 弱화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다.

1948年봄 南勞黨과 北勞黨은 美蘇共同委員會가 決裂된후 포기했던 南韓에서의 左右合作工作을 擴大시켜 南北協商會議를 추진하였다. 이것은 民族陣營의 内部分裂을 조장하고 一部 民族主義者들을 民族統一이라는 美名下에 同調勢力化시키려는데 目的을 둔 것이었다.³³⁾ 南北協商案은 南北의 永久分断을 우려하여 李承晩이 주장하는 南韓 单独選舉에 반대하고 南北韓에서 美蘇兩軍이 撤収한후 全韓國을 통한 總選舉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金九, 金奎植등 中道的 民族主義者들을 誘惑하여 南韓의 民族陣營을 分裂시킬 수 있는 좋은 미끼로 삼았다.³⁴⁾ 1948年 4月 14日부터 平壤에서 개최된 南北朝鮮諸 政黨社會團體代表者連席會議는 共產主義者들에게 철저히 利用당한 會議로서, 美蘇兩軍의 撤収後의 總選舉를 決議하였다. 蘇聯은 5月 7日 蘇聯은 南北協商會議가 채택한 外軍撤収案에 同意한다고 하면서 이미 蘇聯은 駐屯軍의 一部撤収를 실시하고 있다고 發表하여³⁵⁾ 美軍의 撤収와 韓國民의 同調를 유도하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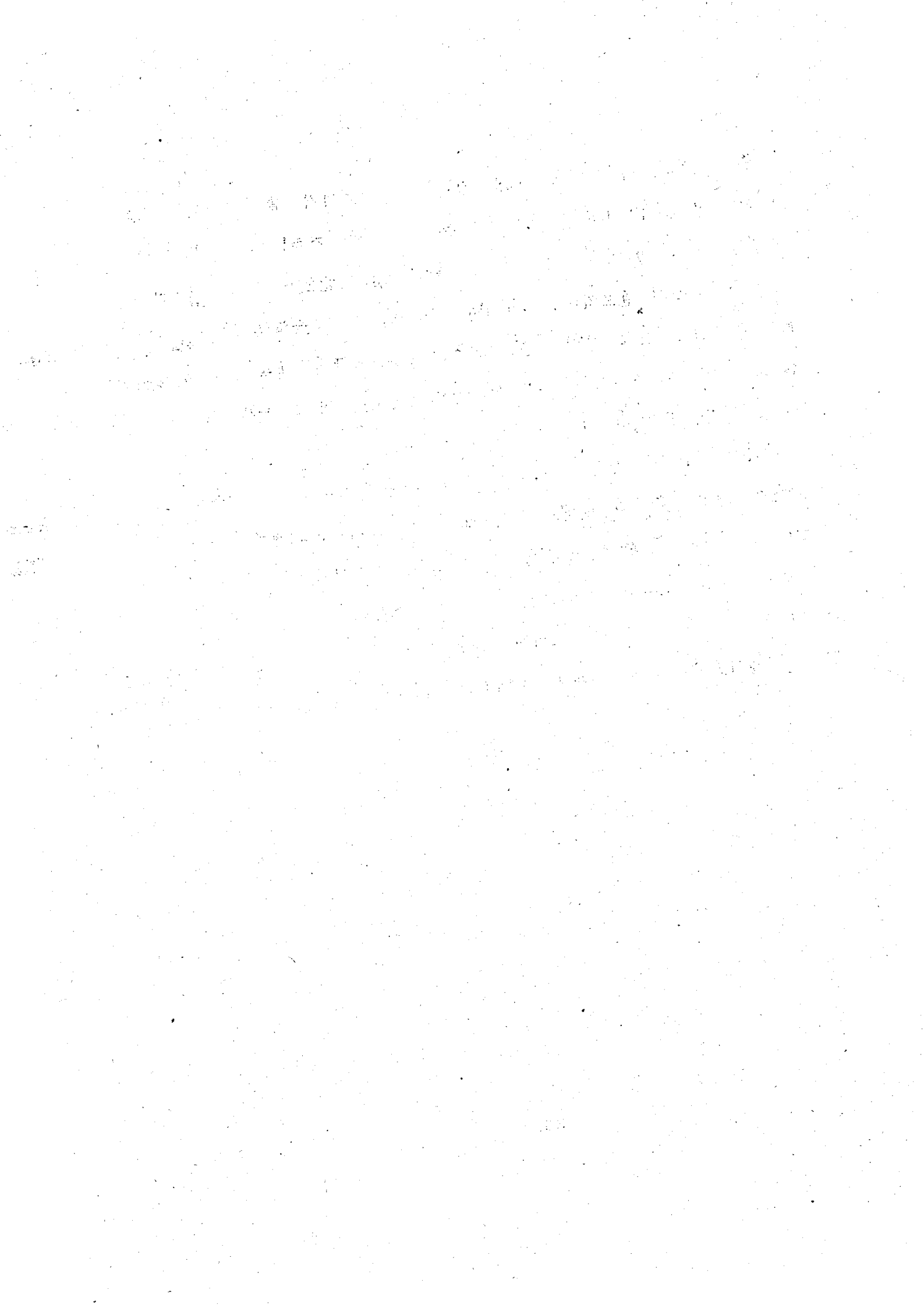
北韓政權이 樹立된 後에 이들의 策動은 계속되어 北傀政權의 樹立이 宣布된 직후인 1948年9月12日 北傀最高人民會議는 韓國의 經濟, 政治, 文化的 繁榮을 위한 民主的이며 平和的인 統一政府을 수립하기 위한 先行條件으로 모든 外軍의 即刻的인 撤收를 요구하는 呼訴文을 美蘇兩國政府에 보냈다.³⁶⁾ 蘇聯은 이에 호응하는 形式으로 蘇聯은 10月中旬부터 撤軍을 實施하여 同年末까지 完了하겠다고 발표하고, 美國政府에 제도 같은 措置를 취하도록 要求하였다.³⁷⁾

蘇聯과 北韓의 이러한 策動은 美國의 呼應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美國은 蘇聯의 外軍撤收提議이 있을 무렵부터 美國나름의 撤軍計劃을 마련하고 있었으며, 1948年9月21日에는 駐韓美軍의 減軍을 결정하였다. 또한 韓國政府가 韓國軍 強化를 위한 援助와 韓國安保에 대한 美國側의 保障을 要請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아무런 對策도 마련해 놓지 않은채 1949年6月29日 駐韓美軍을 完全撤收하였다. 또한 1950年1月12日에는 오히려 韓國을 美防衛線밖에 둔다는 발표를 하였다. 이러한 美國의 對韓政策은 물론 蘇聯의 戰略에 말려든 것은 아니나, 蘇聯과 北韓이 바라던 南侵條件을 充足시켜 준 것만은 틀림없다.

더구나 共產主義者들은 美軍이 駐屯하고 있던 당시에도 南韓內에서 南韓社會를 混亂시키려는 목적에서 1948年 濟州島의 4·3 武裝蜂起를 비롯한 各種 테러活動을 자행하였고, 韓國政府가 樹立된 직후인 1948年末頃에는 麗順叛亂事件(10月19日), 大邱6聯隊叛亂事件(11月2日)등을 背後에서 操縱하였다.³⁸⁾ 또한 1948年4月경에는

平南 江東軍에 江東政治学院을 설립하여 여기에서 訓練한 武装遊擊隊를 1948年 11月부터 1950年까지 10次에 걸쳐 南派시켜 계엄라戰을 시도하였다.³⁹⁾ 1950年에 들어서면서 北傀는 38線에서의 排發을 빈번히 일으켰다. 이러한 北傀의 南韓社会混乱策動은 韓國政府의 治安強化로 인해 진압되었으나, 韓國政府의 계속적인 支援強化要請에도 不拘하고 美国이 微温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北傀가 南侵에 自信을 갖게 해주었다고 하겠다.

北傀가 南侵을 앞두고 이같이 南韓内 共產主義者들이 排發行爲를 조장한 것은 美国의 反應을 시험해 보는 동시에, 北傀가 南侵을 할 경우 그것을 南韓의 政治的腐敗에 따른 内亂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될 수 있는 한 韓國戰爭에 美国이 介入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 같다. 北傀는 드디어 南侵의 條件이 성숙되었다는 판단 아래 金日成의 命令에 따라 1950年 6月 25日 南侵을 단행하였다.⁴⁰⁾



第2章 韓国戦争勃発을 前後한 韓美關係

第1節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第2次大戰後 蘇聯은 戰爭時부터 추구해온 膨脹政策을 계속 추구하였으며 韓半島에 대해서도 그 戰略的 價値를 충분히 고려하여 뚜렷한 政策目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 이에 反하여 美國은 韓國의 價値를 제대로 理解하지 못했기 때문에 韓半島의 將來를 가볍게 處理하려 하였으며, 거의 即興的으로 韓國問題에 接近하려 했던 것 같다. 따라서 美國은 美國이 獨自的으로 解決할 수 있었던 韓國問題에 必要없는 讓步를 함으로써 韓半島의 紛爭을 自招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証拠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蘇聯은 이미 1945年 2月8日에 열린 얄타會談에서 滿洲에 대한 支配權을 要求하여 美國의 事實上的 同意를 얻는데 이어, 同年7月에 열린 포츠담會談에서는 韓半島에 대한 美國의 作戰計劃을 타진하여 韓半島에 대한 蘇聯의 關心을 表明하였다. 그러나 美國은 얄타會談에서 韓國의 信託統治라는 一般原則에 만 關心을 表明했을뿐, 蘇聯을 早速히 對日 戰에 參戰시키려는 早急性에서 蘇聯의 韓半島攻擊作戰을 허용하였다. 美國이 포츠담會談을 進후하여 韓半島의 將來에 대한 具體的인 政策을 세우고 蘇聯의 韓半島 進軍을 저지시키려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美国軍部는 포츠담會談 2個月前 韓國에서 共同作戰을 퍼
자는 蘇聯側提案을 거부하였는데 그 理由는 美國이 日本上陸作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美國이 利用할수 있는全兵力을 投入해야 할 것
으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맥아더(MacArthur) 將軍까지도
日本이 降伏하기前까지는 日本이 美國에 쉽사리 屈服하지 않을 것으
로 보고 日本의 占領과 保護를 위해 隷下部隊를 다른 地域에 파견
하기를 싫어 하였으며, 이때문에 맥아더 將軍은 中國駐屯美軍司令官 웨
이드마이 將軍 7個美步兵師團을 中國에 파견해 달라는 要請을 거절했
다는 것이다. ⁴¹⁾ 더구나 맥아더 將軍은 日本이 降伏하기 前까지는 韓
國을 포기하려 했다고 한다.

즉 맥아더 將軍은 1945年 2月 全滿州, 韓國 그리고 경우에 따라
서는 北部中國까지도 共產主義에 상실하는 것을 不可避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한 맥아더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징후가 나타난
것은 日本이 降伏한 後인 1945年 11月로서, 맥아더는 英國軍參謀
總長알란·부룩(Sir Alan Brooke)에게 北部中國의 喪失은 불가
피하지만 軍事力을 動員해서라도 蘇聯의 膨脹을 阻止해야 한다고
말한때부터이다. ⁴²⁾ 그러나 이때의 맥아더의 發言에서도 中國本土의
保衛에만 강한 關心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美國의 一聯의 움직임으로 보면 美國은 일찍부터 韓國을
確保하려는 생각은 없었던 것 같다. 美國이 왜 韓國에 대해서 無
關心했느냐는 理由는 美國側의 資料에 의하면, 戰略적인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日本本土上陸을 앞두고 日本의 抵抗이 클 것으

로 잘못 判断했으며, 동시에 对日戰에 蘇聯을 参戰시켜야 한다는 必要性에서⁴³⁾ 美国은 그 補償으로 蘇聯이 滿州와 韓國을 支配하는 것을 용인하려 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다 根本的인 問題는 다른 곳에 있었다. 우선 첫째는 美国이 戰後의 蘇聯膨脹政策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이다. 美国은 戰時에 다져진 戰時聯合体制가 戰後에도 원만히 機能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하고 蘇聯과의 對立이 생겨날 것으로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韓半島를 포함한 對極東政策을 수립하는데 등한히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둘째, 美国은 強大国中心主義的인 外交政策을 추구해 온 國家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最強國인 日本을 勢力圈으로 確保하고, 蘇聯의 中国本土支配만 防止하면 充分할 것으로 보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韓半島는 地理的으로 보나 歷史的 關聯性으로 보나 別다른 價値를 찾을 수 없는 地域으로 비쳤을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美国政府가 1945年 8月 15日 맥아더將軍에게 一般命令第 1号 (General Order 1)를 下達하여 38線以南의 日本軍의 降伏을 接收하도록 한 것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問題가 남는다. 美国政府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데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要因이 作用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美国은 1945년에 들어 서면서 蘇聯이 東歐 占領地域에 共產政權을 수립시켜 나가는 것을 보고 蘇聯의 戰後政策에 대해 약간의 警戒心을 갖게 되었으리라는 것이다. 둘째 日本이 意外로 쉽게 降服한 데서 나온 영향을 들 수 있다. 맥아더將軍은 日本이 蘇聯이 아니라 美国에게

降服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小規模의 美軍을 韓國에 보낼 決心을 하였다 한다.⁴⁴⁾ 세째, 당시 美國內 一部에서는 蘇聯이 韓半島全體를 支配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에 美國政府로서도 韓半島問題를 完全 無視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당시 駐蘇美國大使로 근무한 바 있는 해리만(W. Aerrrell Harriman)과 포올리(Edwin W. Pauley) 등은 美國政府에게 가능한 한 美國이 韓國과 滿洲에서 많은 地域을 占領하도록 강력히 要請하고 있었다. 그러나 8月11日 美國合同參謀本部는 國務長官 번스(James F. Byrnes)에게 韓半島에서 蘇聯과 경쟁하게 되는 경우 美國이 釜山에 橋頭堡를 獲得할 수 있다면 多幸이라고 報告하였다.⁴⁵⁾

美國防省이 一般命令第1號를 起草하기 시작한 것은 日本이 無條件報復意思를 表示한 다음날인 1945年8月11日의 일로서,⁴⁵⁾ 이것만 보아도 美國이 韓半島에 대해 信託統治를 실시하려는 막연한 構想이외에는 거의 아무런 對韓半島 政策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一般命令 第1號도 거의 即興적으로 作成된 것이었다. 同命令의 內容이 순전히 日本軍의 降伏을 받기 위한 잠정적인 行政的 便宜를 위해 작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다.

美第24軍團 隸下 1個聯隊가 第1陣으로 釜山의 上陸하기 시작한 것은 1945年9月8日과 9日이었다. 蘇聯은 이에 대해 아무런 反對도 표명치 않고 이미 占領하고 있던 서울, 仁川에서 38線北

쪽으로 蘇聯軍을 撤収시켰다. 蘇聯이 韓半島全体를 勢力圈化하려는 政策을 가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反對없이 南韓에서 軍隊를 撤収시킨 理由는 分明치 않다. 그러나 蘇聯의 膨脹政策에서 나타나는 特徵인 紛爭에 蘇聯軍을 직접 投入치 않으려는 政策으로 미루어 보아, 蘇聯은 美国과의 直接的인 對立을 바라지 않았을 것이며, 동시에 蘇聯은 蘇聯이 韓半島에 대해 領土的인 野心이 없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後日 韓半島問題를 蘇聯에게 有利하게 解決하려는 의도에서 그러한 行動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蘇聯의 行動이 韓國에게 미친 영향은 극히 컸다. 美国의 一般命令第1号는 앞서 본 美聯合參謀部の 意見으로 보아 美国이 蘇聯의 反應을 보려고 했던 감도 없지 않다. 그런데 蘇聯이 意外로 美国의 政策에 順應하는 行動을 보이자, 美国은 蘇聯이 韓國에 대한 支配慾이 없는 것으로 誤解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판단했다면, 韓半島에 대해 별다른 利害關係를 느끼지 않고 있던 美国으로서 蘇聯에 對항해서 韓半島를 保全하기 위한 政策을 강구할 必要性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美軍政이 實施된 후 軍政當局이 民族陣營의 統合 強化에 힘쓰지 않고 左派의 政治活動에 대해 寬容政策을 取할 것 그리고 韓半島政策에 消極性을 띠게 된 데는 이러한 蘇聯의 反應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美国은 韓國에 軍政을 實施하게 된 후 早速히 韓國問題를 解決하고 韓國에서 손을 떼려 했던 것 같다. 駐韓美軍司令官은 駐韓美蘇兩軍司令官간의 交渉으로서 韓國의 政治·經濟的 統一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美国政府에 政府水準의 交渉을 통해 이 問題를 解決하도록 要請하였다.⁴⁷⁾ 이에 따라 1945年 12月 16日에 모스크바會談이 개최되어 美蘇共同委員會를 설치하기로 合意를 보았으며, 美蘇共同委員會는 1946年 3月 20日부터 同年 5月 8日까지의 第1次會談과 1947年 5月 21日부터 同年 7月 10日까지의 第2次會談을 가졌으나 아무런 成果없이 끝나 버렸다.

美蘇共同委員會가 美国이 기대했던 어떤 解決을 가져오지 못하고, 韓國統一政府樹立에 대한 美蘇兩國의 政策에 根本적인 差異가 있음이 드러나자, 美国은 韓國問題의 새로운 解決策을 모색하기 위하여 對韓半政策을 樹立하는데 보다 큰 關心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美軍政當局은 1946年 左右合作運動에 대해 지지聲明을 내면서도 同年 9月에는 韓國人 部處長에게 行政權을 이양한다고 발표하고 首都 警察廳을 發足시켰다. 同年 10月에는 法令 118號를 公布하여 過渡 立法議院을 設置한다고 발표하였다. 第2次美蘇共同委員會가 決裂된 직후인 1947年 8月에는 左翼에 대한 大대의인 檢挙가 단행되었다. 이러한 軍政當局의 措置는 美蘇共同委員會의 經過로 보아 事實上 南北韓을 統一시킬 수 있는 希望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分斷 後의 韓國政府樹立을 위한 準備作業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當時의 美国政策은 그 力點이 韓國으로 부터 美国의 名譽를 손상치 않은 채 撤軍할 수 있느냐는데 있었다. 駐韓美軍 撤收問題는 第2次美蘇共同委員會에서 蘇聯側이 제기한 바 있으나, 美国 內에서도 같은 時期에 이 問題가 提起되고 있었다. 美国은

1947年3月 트루만大統領이 트루만, 독트린을 宣言하여 对共封鎖政
策을 내걸게 되었으나 1947年5月당시 美国軍은 動員解除로 인해
극히 낮은 水準에 머물고 있었다. 이 때문에 美国防長官패터슨(
Robert P.Patterson)은 國務省에 대해 卽시한 國務予算으로서는
占領費를 감당하기 어려우며 韓國은 비교적 戰略的 重要性이 낮다
는 것을 理由로 駐韓美軍撤収를 考慮하도록 요구하였다.⁴⁸⁾

마셜(George Catlett Marshall) 國務長官은 패터슨 國務長官의
要求에 應하지는 않았으나 美軍의 實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1947年 가을부터 어떻게 하면 体面을 잃지 않고 韓國에서 떠날수
있느냐는 問題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⁴⁹⁾ 그러나 당시 駐韓美軍司
官으로 있던 하지(John R.Hodge)中將은 美国이 1947年中에 撤
軍한다면 그것은 全韓國에 대한 北韓 또는 共產主義支配를 뜻할 것
이라고 報告하고 있었기 때문에 慎重한 檢討가 필요하였다.⁵⁰⁾

따라서 이런 結果를 피하기 위해 트루만大統領은 1947年9月
웨드마이어(Albert C.Wedemeyer)에게 調査報告書를 作成하도록
指示하였다. 웨드마이어報告書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
다. 美軍의 一方的 撤収는 美国이 韓國을 拋棄하는 것으로 오해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美国은 美蘇兩軍의 同時撤収를 실현해야
하며, 撤軍에 앞서 共產北韓의 잠재적 軍事威脅에 対処할 수 있을
정도의 韓國軍을 組織 武装시켜야 한다. 万一 이러한 美国의 援
助가 없이는 韓半島는 극히 優勢한 共產軍의 手中에 들어 갈 것
이라는 것이다.⁵¹⁾

이 웨드마이어報告書는 美国政府로 하여금 美国이 韓国の 安全에 대한 적절한 措置를 강구해 놓지 않고서는 撤軍을 단행할 수 없다는 判断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1947年9月17日 마셜美国 務長官은 유엔總회에서 韓國問題의 合理的 解決方案으로 美蘇兩軍의 同時撤收 및 韓国の 即時獨立을 지지해 주도록 要請하였다.⁵²⁾

同年9月23日 美国代表는 유엔總회에 外国占領軍의 不必要한 韓国内長期駐屯은 그들 自身の 責任있는 獨立政府를 세우려는 韓国民의 努力을 해치는 동시에 그들의 主權·獨立原則에도 위배된다는 内容의 決議案을 提出하여,⁵³⁾ 同年11月14日 通過되었다. 또한 이 決議案은 美国合同參謀本部和 맥아더將軍의 事後同意를 받았다.⁵⁴⁾

美国이 韓國問題를 유엔總회로 移管시킨 理由는 美蘇兩國間의 協商을 통해서는 解決을 볼 수 없다는 것이 証明된 韓國問題解決의 실마리를 다른 곳에서 開拓해 보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는 이미 美国政府가 유엔에 提訴하더라도 별다른 成果를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認識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美国은 韓國問題를 유엔에 提訴함으로써 韓国民에게 心理的 安定感을 주고 美軍撤收에 따른 韓国の 軍事的 空白을 어느정도 補完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또한 韓國单独政府樹立이 不可避할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美国 特히 軍当局이 韓國問題의 早速한 解決을 통해 早速히 美軍을 撤收하려는데 政策에 力点を 두고 있었던 데는 變함이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웨드마이어報告書를 토대로 美合同參謀本부가 1947年9月25日에 作成하여

마셜國務長官에게 보낸 報告書에도 잘 나타나 있다.

同報告書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內容으로 되어 있다. 즉 軍事的 安全에서 볼 때 美國은 韓國內에 現在와 같은 軍隊와 基地를 유지해야 할 戰略的利害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現在의 심각한 軍事力不足으로 볼 때 現在 南韓에 유지하고 있는 2個 師團, 約 4萬 5千名은 다른 곳에서 有用하게 사용될 수 있으며, 따라서 蘇聯이 日本에 攻擊할 수 있는 강력한 軍事力을 南韓에 설치하지 않는 한 美極東司令部의 軍事的 地位는 損傷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⁵⁵⁾

美國政府는 1947年 11月 14日의 유엔總회의 決議가 있은후 韓國問題推移에 注意하면서 蘇聯의 反應을 보았다. 韓國問題에 關한 유엔의 첫번째 결의안인 同決議案은 駐韓外國軍의 早速한 撤収, 가능하다면 90日以內의 撤収를 권고하고, 유엔韓國臨時委員團을 구성하여 1948年 3月 31日前에 실시할 自由總選舉를 통해 議會 및 政府를 樹立하도록 하며, 政府樹立後에는 保安軍創設에 협조한다는 것등을 內容으로 하고 있다.⁵⁶⁾

유엔韓國臨時委員團(UNCOK)은 1948年 1月 8日 서울에 到着하여 活動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蘇聯에 의해 北韓入國이 거부당하게 되자 2月 26日 유엔總회에 方針을 同議하였으며, 유엔政治委員會는 유엔韓國臨時委員團으로 하여금 全韓國에서의 選舉監視가 不可能할 경우에는 가능한 地域에서라도 選舉를 監視하도록 決議하였다.⁵⁷⁾

이에 따라 1948年 5月 10日 유엔韓國臨時委員團의 監視아래 自由

로운 분위기 속에서 南韓만의 總選舉가 실시되고, 同年 8 月 15 日 韓半島内에서의 唯一合法政府로 유엔이 인정한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었다.

第 2 節 撤軍을 둘러싼 韓美交涉

美国은 1948 年末까지 美蘇兩軍을 無條件撤収시키자는 1948 年 9 月 19 日 蘇聯提議를 거부하였다.⁵⁸⁾ 그러나 美国은 9 月 21 日 이미 美国은 駐韓美国을 減縮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最終적인 撤軍은 유엔總회의 韓國問題決議가 있기 前까지는 實施하지 않겠다는 點을 분명히 하였다. 유엔總회는 同年 12 月 12 日 韓國을 韓半島内的 唯一合法政府로 認定하고 韓國委員團(UNCOK)을 韓國에 파견하여 撤軍을 監視하기로 決議하였다.⁵⁹⁾

美国政府가 원래 計劃했던 1948 年末까지의 撤軍計劃을 實行하지 못하고 유엔의 새로운 決議가 있기를 바란 것은 몇가지 要因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美軍撤収가 시작된 직후 韓國의 治安狀態가 不安하였기 때문이다. 즉 同年 11 月에는 旅順叛亂事件, 大邱 6 聯隊반란事件, 求禮共匪事件 등이 연달아 일어나고, 이에 따라 韓國議會는 11 月 20 日 韓國軍의 自衛力이 갖추어 질 때까지 美軍撤収延期를 要求하는 決議案을 통과시켰다. 무초駐韓美国大使도 同年 11 月 12 日 國務省에 電文을 보낸 “韓國政府가 最小限의 安保態勢를 갖추기 때까지 撤軍時期를 늦추어야 한다”고 要請하여 國務省의

同意를 받았다.⁶⁰⁾

둘째, 美国은 韓國과 유엔과의 關係를 確認시키려 했던 것 같다. 다시 말하면 美国은 美国의 撤収가 無條件撤収가 아니라 世界平和 機構인 유엔의 決議에 따른 것이며, 따라서 유엔決議에 따라 다시 韓國에 올 수도 있다는 것을 蘇聯에 인식시켜 蘇聯이 韓國政策에 慎重을 기하게 되기를 기대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美国이 韓國戰爭參戰時 유엔의 決議에 따른 유엔軍의 形式으로 參戰한 것은 그 때문인 것 같다.⁶¹⁾

1949년에 들어서면서 美国內에서는 駐韓美軍의 撤収를 놓고 여러가지 意見이 대립되고 있었다. 美陸軍省은 1948年 3月末까지 駐韓美軍撤収를 完了시키자고 한 데 대해, 國務省은 1948年 11月 12日 字 무초大使의 電文을 상기시키면서 國家安保會議의 全般的檢討가 끝날 때까지 撤軍時期의 延期를 주장하였다. 맥아더將軍은 1949年 1月 19日 字 報告書에서 “美国은 内部烽起를 수반하는 正式侵略을 韓國이 저지할 수 있도록 韓國軍을 武装해줄 能力이 없으며 따라서 서 威脅이 고조되면 對韓國軍 軍事支援은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고 한다.⁶²⁾ 드럼라이트駐韓美代理大使는 3月 28日 애치슨長官에 대한 報告書에서 韓國政府는 安定되어 가고 있기때문에 韓國政府의 장래를 위태롭게 만들지 않고 駐韓美軍을 撤収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나 駐韓美軍事顧問團(KMAG) 要員을 증가시키고 韓國防衛軍 發展을 위한 再編成計劃을 勇의 주도하게 짜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意見을 나타냈다.⁶³⁾

이 같이 駐韓美軍撤収에 대한 의견이 분산된 가운데 이 問題에 대한 最終決定은 國家安保會議에 맡겨졌다. 國家安保會議(National Security Council)은 1949年3月22日의 會議를 열고 討議 및 決定事項을 要約報告書로 作成하였고 다음날 트르만大統領이 이에 署名함으로써 美國의 對韓政策의 指針이 되었다. 南北韓의 軍事力 比較, 對韓政策決定上 基本要件, 結論으로된 同報告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安保會議의 評價內容

國家安保會議(NSC)가 49年3月22日 駐韓美軍의 撤収를 最終決定하기에 앞서 評價한 ①南北韓의 軍事力比較 ②對韓政策決定上 基本要件 및 ③結論은 다음과 같다.

南北韓 軍事力 比較

美軍이 訓練 무장시킨 韓國軍은 陸軍6万5千, 警察4万5千과 海안경비대4千등 11万4千名線이다. 陸軍병력 가운데 5만정도가 美보병장비로 무장했으나 警察과 海안경비대의장비는 반이 미군의 보조병기인 카빈으로, 나머지 반은 日本軍이 두고간 구식장비로 무장돼있다. 초계정 등 작전용 선박이 필요했으나 이를 확보할수 없었다. 공군력은 12대의 정찰기를 미군으로부터 양도받은 게 고작이다. 현재 計劃으로는 韓國軍의 연대단위정도의 부대訓練이 1단계 마무리 지어지는 시기는 49년6月1日이다. 蘇聯이 北韓에서 占領軍을 撤収했다는 주장은 표면적인 것일 뿐 蘇聯軍은 이미 인민군

을 우수하게 조직, 訓練시켜 奉후였고 소련군에서 복무한 경험이 있는 北韓출신 蘇聯軍人을 인민군장교로 증원시켰으며 蘇대사관에 다수의 군사고문단을 남겨 놓고 있다.

인민군과 보안대원의 병력은 7万5千에서 9万5千名線이나 그 숫자와 맞먹거나 상회하는 숫자와 병력이 中共軍의 要員으로 배속되어 있거나 訓練을 받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人民軍은 박격포와 각종 자동화기를 주화력으로 하여 소련제 무기과 장비로 무장되어 있고 여러대의 전투기와 정찰기를 蘇聯으로부터 양도받았다.

對韓政策 基本要件

① 한국사태가 심각하게 와해될 위험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② 그러나 韓國民의 복지 및 美國의 國益에 도움이 된다면 美國은 韓國政府에 政治·經濟·技術·軍事的 支援을 계속해야 한다.

③ 駐韓美軍의 早期撤収가 美國의 對韓政策目的으로 1948年 12月 12日의 유엔決議에 의한 美國의 국제公약으로서 實施되는 만큼 그러한 支援이 駐韓美軍의 존속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美國의 政治, 軍事關係者들의 판단을 포함, 現在 수집가능한 資料에 따르면 韓國政府에 대한 美國의 계속 支援이 가져오는 효과는 駐韓美軍의 계속유지 여부에 구애될 必要가 없다고 믿어지며

그러한 지원은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포함한다.

A. 외부침략에 대한 저지력으로서, 韓國国内秩序에 대한 安保軍으로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하기 위해 현 회계연도의 잔여기간과 1950 회계연도에 韓國국방군을 위한 訓練, 裝備, 지원계획을 이행한다.

B. 1950 회계연도를 통해 對韓經濟, 技術支援에 관한 현존계획과 앞으로 2年동안의 사태발전에 따른 支援計劃을 수행한다.

⑤美軍部와 담당분야의 군사責任者들은 駐韓美軍이 1949年5月10日까지 韓國으로부터 撤収해야 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結 論

A. 韓國에 대한 美國의 支援은 광범한 政策目標도 계속되어야 한다.

B. 美國은 對韓政策 目標을 수행함에 있어서 韓國政府에 政治的, 支援과 함께 經濟的, 技術的, 軍事的 및 其他 원조를 계속해야 한다.

C. 駐韓美지상군이 1949年6月30日까지 完全撤収를 이행하기 위해서 유엔韓國委員會(UNCOK) 및 韓國政府와의 협의를 포함한 準備作業를 수행한다.

D. 駐韓美軍의 最終撤収에 앞서 치안유지병력(군·해안경비대·경찰)이 사용할 裝備과 6個月間의 교체期間동안에 충당할 充分한 補給물자와 함께 비상시에 대비한 소비품들을 韓國政府에 이양해야 한다.

E. 現在 하급부대 단위도 있긴하지만 美軍事고문단이 즉각 편성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美国은 韓國의 해군력을 支援한다.

F. 1950 회계연도의 계속적인 對韓 군사원조를 위해 議회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그후 事態의 변화에 부응하여 다음과 같은 支援을 계속한다.

① 잘 訓練되고 좋은 裝備를 갖춘 公중정찰대를 포함한 6万5千名の 군병력.

② 밀수, 해적, 불법입국 및 적대세력의 해상침투를 봉쇄하기 위한 4千名の 海안경비대.

③ 한국군과 협조할 수 있는 3万5千名の 경찰병력을 위한 경화기와 裝備의 支援.

G. 現在 구상중인 1950年度 對韓 ECA 援助計劃案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야하며 그같은 計劃이 今後에도 經濟, 技術원조라는 측면에서 매년 檢討하도록 해야한다.

H. 情報, 文化, 教育등 여러방면에 걸친 인사교류를 증대시켜야 한다.

I. 韓國에서 美国政府의 활동은 모두가 美国大使의 지휘하에 들어가는 駐韓統合美国使節團아래 단일화시켜야 한다.

J. 美国은 韓國의 合法政府가 자유롭고 統一된 韓國을 이룩하려고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적절한 支援을 해 주어야 한다.

K. 韓國에 잔류해온 美軍들 마저 철수한다는 사실을 공포함에 있어 美国은 이 撤軍조치로 하여 미군의 韓國政府에 대한 지지도

를 줄이는 것이 결코 아님을 확고하게 밝혀두어야 한다.

韓國政府는 駐韓美軍撤収가 具体化되어 가자 危機意識을 느끼고 韓國安保에 대한 美國의 確實한 保障을 받기 위하여 1943年 3月 趙炳玉을 特使로 파견하는등 外交努力을 계속하였다.

韓國政府가 對美外交交渉을 통하여 美國의 保障을 받으려 한것은 대체로 駐韓美軍의 撤収는 不可避한 事實로 인정하고, 그대신 韓國軍의 增強, 韓美條約締結을 통한 防衛保障等이었다.

韓國政府가 韓國軍의 增強을 要請하고 北傀의 南侵可能性을 계속 警告한 것은 北傀의 南侵이 있을 때까지 韓國政府의 一貫된 對美要求였다. 그러나 韓國政府가 駐韓美軍撤収를 現實로 받아들여려 한 것은 1949年 4月 18日 李大統領이 “美軍撤収가 美國의 韓國에 대한 責任이나 關心을 조금이라도 減少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⁶⁵⁾는 발언을 하게 된 이후의 일이다. 그 以前에는 駐韓美軍의 撤収를 연기시키려는데 힘썼으며 趙炳玉特使의 主任務도 거기에 있었다.

그러나 美國의 駐韓美軍撤収가 變更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자 韓國政府는 美國의 防衛保障을 얻어내려는데 중점을 두게 되었으며, 이러한 政策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은 1949年 5月 7日 金東晟公報局長을 통해 發表한 李大統領의 聲明이다. 이 聲明에서 李大統領은 “韓國이 美國의 防衛線안에 들어 있느냐의 問題보다 더 重要한 것은 外勢의 支援을 받는 北쪽의 攻擧를 받았을때 韓國은 美國의 全面的 軍事支援을 받을 수 있다고 信賴할수 있느냐

에 있다. 이것은 美軍이 撤收하느냐 殘留하느냐의 問題보다 더 重要하다. 韓國이 共產主義者들과 생존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韓國人들 스스로가 가져온 것은 아니다. 日本이 패망했을 때 韓國에 共產主義者는 없었다. (美蘇의 韓國分割協定에 의해 共產主義者들이 韓半島에 발을 붙였다. 北쪽의 共產主義者들이 38線을 넘으면 우리는 생명을 걸고 이들과 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武器가 必要하다고 주장하였다. ⁶⁶⁾)

韓國政府는 美國의 韓國에 대한 保障으로 美國에게 韓美條約 또는 共同防衛條約締結을 요구하였다. 또한 李大統領은 美國이 中國을 버리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않았다고 하면서 美國이 韓國에 대해서 어떤 일을 저자 들지 모른다는 不安을 표시하고, 北大西洋條約과 비슷한 太平洋條約 또는 多國間條約, 심지어는 1882年의 韓美條約의 友好條約이라도 再確認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무초大使는 中共軍이 설사 成功하더라도 中國北部地域安定問題에 정신이 팔려 韓國問題에 關心을 가질 수 없을 것이며, 北으로 부터 韓國에 대한 어떤 侵略도 없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美國은 韓國政府가 요청한 韓美條約에 대해서도 아무런 言質을 주지 않고 다만 韓美友好通商條約에 관한 협상은 고려할 수 있다는 태도를 취했다. ⁶⁷⁾ 더구나 美國은 韓國軍增強要求에 대해서도 별로 적극적으로 못되었으며, 1949年 5月 28日과 30日에 仁川을 떠난 撤軍第1陣은 裝備의 60%를 가지고 떠났다. ⁶⁸⁾

이같이 美國이 韓國 安保에 대한 아무런 滿足할만한 代案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韓國을 떠나자 韓國에서는 심한 動搖와 恐怖感이

나돌았다. 韓國內에 不安이 의외로 극심하게 나타나자 美陸軍省은 陸軍長官의 指示로 "駐韓國軍撤収에 따라 있을 수 있는 北傀 全面南侵의 意味"라는 제목의 課題를 연구 분석하여 覺書形式으로 美國務省에 송부했다. 이 研究分析內容을 보면, 美國의 韓國戰爭參戰過程과 극히 유사한 것들이 들어 있다. 그 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69)

美陸軍省의 研究報告書는 撤収後의 北傀全面南侵에 대해 美國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措置를 장기조치와 즉각조치로 분류하였다.

장기조치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나열하였다.

- A) 北傀政權과 직접협상으로 韓國의 平和統一를 이룩하도록 李大統領政府를 고무시킨다.
- B) 北傀땅에 韓國의 地下機動部隊를 투입 활동시키기 위해 지금부터 計劃과 組織을 시작한다.
- C) 美國海軍이 때때로 韓國항구를 방문한다.
피침치 즉각조치로는 5개 항을 들었다.
- D) 韓國에 있는 美國市民과 軍事顧問官을 救出하기 위한 긴급 撤収計劃을 즉각 이행한다.
- E) 南侵을 유엔安保理에 제기하여 세계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긴급대책을 강구토록 한다.
- F) 美國과 다른 유엔會員國軍隊로 構成되는 軍작전부대를 유엔재가를 얻어 韓國에 투입하여 국제경찰활동을 實施한다.
- G) 韓國政府의 特別要請으로 美國이 合同作戰部隊를 재편성한다.

H) 트루먼·독트린을 韓國에도 適用한다. 陸軍省은 이 研究分析의 結論으로 다음 3가지를 열거하였다.

첫째 北僞의 軍事침략에 앞서 美國政府는 장기조치로 ㉠와 ㉡를 채택한다.

둘째 美國은 李大統領政府가 武力에 의하지 않고 韓國統一努力을 진지하게 밀고 나갈 때 그리고 ㉠조치가 실패할 경우 장기대책의 ㉢를 채택한다.

셋째 北僞의 全面南侵에 韓國政府가 成功的으로 반격하지 못할 경우 美國政府는 ㉠와 ㉢를 채택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美軍合參議長은 이 陸軍省의 研究分析에 각서형식으로 아래와 같은 論評을 첨부하였다.

A) 합참의장의 立場은 美國에 대한 韓國의 戰略的 位置는 거의 없다는 것이며 韓國에서 美國이 軍事介入한다는 것은 잘못 충고받은 것이다. 전반적인 세계정세의 潛在性과 現在의 美 軍事力과 美國이 지고 있는 무거운 국제적의무에 비추어 實踐 不可能하다.

B) 陸軍省의 研究分析結論도 앞서의 合參의장의 立場과 일치한다.

C) 合參議長은 장기조치로서의 ㉡(국제경찰활동)와 ㉣(美합동작전부대 한국투입)는 군사적 견지에서 건전하지 못하다. 이 두 조치가 중대한 사태를 빚어 내지만 실질이득은 가져오지 않는다. 더우기 두 조치가 모두 대규모 군사개입을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1949年 6月 30日 軍事顧問團만을 남겨놓고 撤軍을 完了한 後의 美國의 對韓政策은 韓國人의 눈에는 극히 不滿스러운 것이었다. 반대로 北韓과 蘇聯에게는 南侵의 与件이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에 틀림없다.

우선 韓國에 대한 美國의 經濟, 軍事援助는 韓國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水準에 머물렀다. 美國政府는 撤軍完了를 앞둔 1949年 6月 7日 1950 會計年度부터 3年에 걸쳐 1次年度에 1億 5千萬弗, 2次年度에 1億 1千萬弗, 3次年度에 8千 5百萬弗을 韓國의 復興을 위해 제공하려는 韓國經濟援助案을 美議會에 提出하였으나 否決되고 말았다. ⁷⁰⁾ 이 案이 否決된 原因은 당시 野黨인 共和黨이 트루만政府의 極東政策이 지나치게 柔和的이라고 본 데 있었다. 이들의 主張은 中國大陸이 共產主義에 넘어가면 그 번두리인 韓國은 美國이 아무리 돈을 쏟아 넣더라도 共產化될 것이기 때문에 韓國에 대한 援助는 共產主義者에게만 좋은 일이 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은 韓國援助는 反共을 위한 極東地域援助의 일환으로 援助해야지 中國을 포기한 채 韓國에만 援助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입장에서 反對하였다. ⁷¹⁾ 이렇게 되자 트루만政府는 對中援助中 未使用分인 1億 2,500 萬弗의 ECA 資金을 韓國과 台灣에 使用하기 위해 共和黨議員들과 절충하여 極東經濟案(The Far Eastern Assistance Act)을 채택하여 韓國에 3千萬弗을 할당하였다. 그밖의 援助額을 합쳐 1950 會計年度의 援助割當額은 겨우 9千萬弗이었으며, 韓國戰爭이 發生할때까지 韓國에 도착한 것은 約 4千 5百萬弗에 불과

하였다. 72)

韓國에 대한 軍事援助는 美軍撤収時의 一部裝備移讓과 1949년에 통과된 相互防衛援助法 (The Mutual Defense Assistance Act) 에 따른 援助가 있었다. 相互防衛援助法案에 의한 軍援額은 겨우 駐韓美軍이 韓國軍에 이양한 裝備를 유지, 보충할 수 있는 정도의 額數였다. 73)

따라서 6.25南侵時의 韓國軍의 軍事力은 1年前 美軍이 撤収하던 당시의 水準에 머물고 있었으며, 北傀軍과의 軍事的 均衡은 完全히 깨어진 상태에 있었다. 1950年6月25日現在의 韓國軍의 軍事力은 總兵力 10萬, 各種砲 700門, 對戰車砲 140門, 바주카砲 1,900門, 裝甲車 27台, 各種 艦船 30隻, 練習機 10台였다. 74)

이같은 韓國의 戰力劣勢와 北韓의 南侵危險性的 增大때문에 韓國政府는 美國政府에 대해 韓國의 安保에 대한 公約과 軍事援助를 要請했음에도 불구하고, 美國은 韓國安保에 대해 極히 모호하거나 또는 극히 不利한 內容의 發言을 되풀이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美國이 韓國을 拋棄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였다. 이러한 發言들은 韓國의 安保狀態를 더 한층 弱化시키고 蘇聯과 北傀 등의 侵略慾을 일층 조장시켜 주는 結果가 되었다. 특히 이러한 發言들은 1950년에 들어서면서 더 많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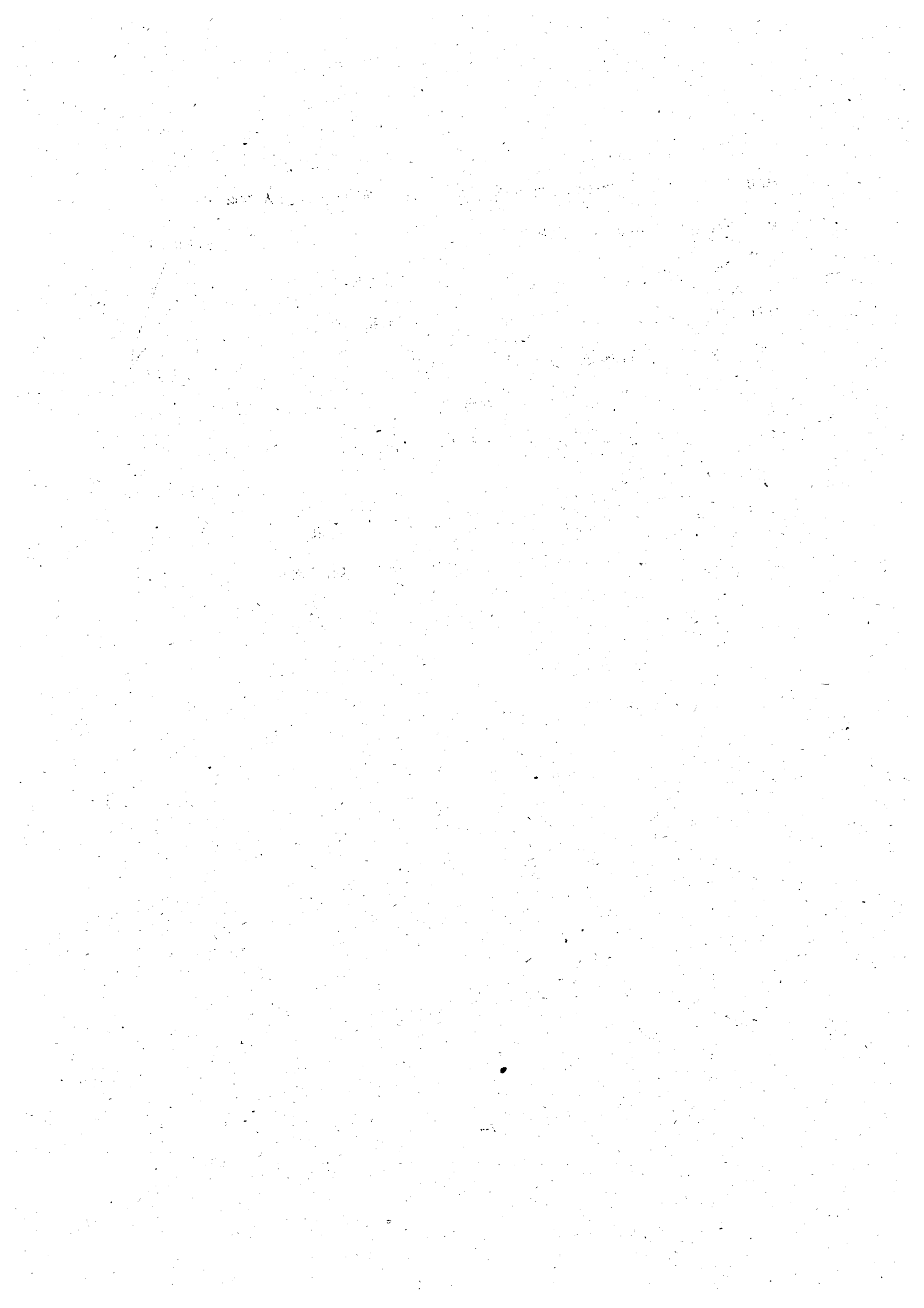
애치슨國務長官은 1950年1月12日 내셔널新聞人클럽에서 美國의 太平洋防衛線에 대해 "이 防衛線은 알류산列島를 따라서 日本에 이르고 그 다음에 琉球列島에까지 뻗쳐있다"고 밝히고 全面戰의

경우 이 防衛線을 방위할 第一次的 責任을 지나 이 防衛線밖에 놓여있는 地域에 대해서는 攻撃에 대응해서 보증할 수가 없다고 發言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防衛線밖의 地域이 攻撃당할 경우에는 "처음에 의지할 것은 侵略에 대해 反擊하려는 攻撃받는 國民들에게 달려 있으며, 그다음으로 依支할 곳은 外侵에 대해 自由와 獨立을 방어하려고 決心하는 國民들에 의해 신뢰받고 있는 유엔憲章下에서 움직이는 全文明國家들의 態度에 달려 있는것"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계속해서 그는 韓國과 日本에 대해 언급하면서 "日本은 美國이 直接 責任지고 있으며, 또 外部의 侵透에 對抗"해야 할 것이고, "약간 程度는 낮으나 韓國에서도 같은 立場이다. 그곳에도 직접 責任이 있으며 이미 우리가 行動하였고, 보다 더 南쪽 地域에서는 어려우나 그곳에서는 보다 効率的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하였다. ⁷⁵⁾ 이것은 韓國이 美太平洋防衛線밖에 놓여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韓國에 대한 外侵에 美國이 干涉치 않겠다는 것으로 오해될 위험이 있었고 共産側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可能性이 크다.

美上院外交委員會委員長인 톰 코넬리 (Tom Connally) 議員은 1950年5月 蘇聯은 언제든지 南侵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경우 美國은 韓國이 美國에게 매우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大規模戰爭이 發生할 경우 아마 介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⁷⁶⁾

이당시는 맥아더司令部의 G-2가 北僞軍의 活潑한 움직임에 대한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다. 즉 1949年9月 맥아더司令部는

中共의 勝利가 確實해 지면서 많은 中共軍所屬 韓人部隊가 北韓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1949年 12月과 1950年 1月에는 잘 武裝된 北傀軍의 韓國軍에 대한 威脅이 1950年봄 날씨가 좋아지면 더 커질 것을 알고 있었고 1950年 3月 10日에는 1950年 6月 北傀의 南侵이 시작될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는 內容의 報告를 워싱턴에 보냈으나, 2주일後에는 極東司令部 G-2가 1950年 봄이나 여름에는 韓國內戰이 發生치 않을 것이라는 結論을 내렸다.⁷⁷⁾ 여하튼 1950年 6月까지 韓國에서는 南侵을 우려하고 있었던데 비해 서울, 東京, 워싱턴의 美當局은 南侵可能性은 있으나 緊迫하지는 않다는데 意見이 一致됐다.



結 論 - 美國의 參戰要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韓國戰爭은 蘇聯의 帝國主義政策에 의해 치밀하게 計劃된 戰爭이었다고 할 수 있다. 蘇聯은 포츠담會談을 前後해서부터 韓半島에 대한 美國의 政策을 타진하여 美國이 韓半島에 대해 별다른 利害關係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재빨리 韓國의 軍隊를 上陸시켜 蘇聯의 勢力圈에 포함시키려 하였다. 美國도 대체로 인정하려 했던 것 같다. 78)

美國이 一般命令第1號를 發表하고 1945年 8月 15日 韓半島를 分割占領하기로 결정한 것은 다분히 即興的인 決定이었다. 蘇聯이 美國의 一般命令第1號에 反對하지 않고 38線北쪽으로 軍隊를 撤收시킨 것은 蘇聯의 赤76政策 즉 赤化를 위해 蘇聯軍을 直接 投入하지 않는다는 原則에 따른 것이었다. 蘇聯은 韓半島를 赤化시키기 爲해 今後 치밀한 計劃을 樹立하여 北傀의 南侵時까지 그것을 고수하여 왔다. 그것은 첫째 共產勢力 즉 蘇·中共·北傀間의 連繫強化에 두었고, 둘째 韓國과 美國 및 유엔의 分離를 기도했다. 그를 위해서는 韓國問題를 韓國의 內政問題로 부각시켜 外部勢力의 介入路를 봉쇄하려 하였고 外軍의 無條件撤收를 주장한 것도 이를 위한 戰略이었다. 세계 北傀의 軍事力強化에 努力하였다.

이에 反해 美國은 韓國에 대한 뚜렷한 政策의 構想이 없었다. 蘇聯의 政策이나 韓國의 戰略的 価値에 대한 理解도 不足했다. 政府內의 韓半島政策에 대한 意見總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美国은 美蘇共同委員會가 決裂된 後에야 유엔과 韓國을 연관지우려는 政策을 취했는데 그것은 두가지 効果를 期待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早速한 撤軍을 要求하는 意見을 충족시키기 위해 韓國問題의 主導權을 유엔에 移管하는 形式을 통해 조속히 韓國에서 손을 떼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美国의 撤軍은 韓國의 拋棄가 아니라 유엔이라는 國際平和機構의 決議에 따른 것임을 나타내어 유엔의 결의에 의해 다시 올 수도 있다는 것을 蘇聯側에 보여 주어 蘇聯의 自制를 기대했던 것 같다.

그러나 撤軍이 시작된 後의 美国의 行態는 韓國人에게는 물론 蘇聯側에게도 韓國을 拋棄하는 듯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韓國側이 要求한 韓國安保公約도 피했고, 經濟, 軍事軍援도 形式的인데 불과하였다. 더구나 北僞의 軍事的 움직임으로 보아 南侵可能性이 있다는 情報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애치슨國務長官을 비롯한 責任있는 政治家들이 北僞南侵의 경우 韓國을 拋棄할 것으로 오해될만한 發言을 하여 北僞의 南侵慾을 고무해 주는 결과가 되었다. 사실 이 當時의 美国의 對韓政策은 模糊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韓國에 대해 아무런 公約도 내놓기를 싫어하고, 극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取하던 美国이 놀라울 정도로 迅速하게 韓國戰에 介入하게 된 것은 무엇때문인가 하는 問題가 큰 疑問으로 남는다. 그동안 美国의 駐韓美軍 撤收過程에서 撤軍의 가장 큰 要因의 하나가 韓國의 낮은 戰略的 價值때문인 것으로 논의되어 왔었

기 때문에 美國의 參戰要因은 더 큰 疑問의 대상이 된다.

美國이 韓國戰爭에 介入한 理由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要因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것 같다.

첫째로 美國은 韓國戰爭이 勃發하여 美國이 參戰하게 되는 事態는 바라지 않았지만, 萬一의 事態가 發生할 경우 여기에 介入할 것을 檢討해 왔으며, 參戰할 경우에는 單獨參戰이 아니라 유엔을 통한 參戰을 바랐다는 것이다. 美國이 유엔을 통해 參戰하려 한 것은 國際平和機構로서의 유엔의 機能을 強化하려는 側面도 없지 않으나, 그보다는 유엔을 통한 參戰을 單獨으로 參戰함으로써 생길지도 모를 負擔이나 美國의 參戰동기에 대한 非難을 피할 수 있는 利點을 가졌기 때문인 것 같다.

美國의 유엔을 통한 參戰의 可能性을 암시해 주는 증거는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 몇가지 例를 들면 다음과 같다. 우선, 美陸軍省은 앞서 본 國務省에 보낸 『駐韓美軍撤収에 따라 있을 수 있는 北僞全面南侵의 意味』란 分析研究에서, 즉각조치로 ㉠韓國에 있는 美國市民과 軍事顧問官을 구출하기 위한 緊急撤収計劃을 즉시 이행한다. ㉡南侵을 安保理에 제기하여 世界平和에 대한 威脅으로 緊急對策을 강구토록 한다. ㉢美軍과 다른 유엔會員國軍隊로 구성되는 軍作戰部隊를 유엔裁可를 얻어 韓國에 投入하여 國際警察行動을 실시한다. ㉣韓國政府의 特別要請으로 美國의 合同作戰部隊를 再編成한다. ㉤트루만·독트린을 韓國에는 適用한다는 5個項을 들었는데, 實際로 美國은 韓國戰爭이 發生하자 이중 ㉠㉡㉢項을 즉각

実行에 옮겼다. ⁷⁸⁾ 애치슨國務長官도 1950年1月12日 말썽 많은 美太平洋防衛線에 대해 언급하면서 防衛線밖의 國家는 「外侵에 대해 自由와 獨立을 방어하려고 결심하는 國民들에 의해 신뢰받고 있는 UN의 主導下에서 움직이는 全文明國家들의 태도에」 依支하라고 함축성있는 말을 하였다. 또한 애치슨國務長官의 特使로 1950年6月19日 韓國에 온 덜레스(Dulles)도 韓國國會에서 美國國民들은 여러분들의 자존심이나 여러분들의 努力에 부합되는 도덕적, 물질적 원조를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UN와 一部로 간주합니다. . . . 여러분들은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人間의 自由를 도모하기 위한 거대한 計劃에 값있는 役割을 遂行하고 있는 限, 여러분들은 결코 고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다. ⁸⁰⁾

둘째로 美國은 점차 共產主義에 적극 대처하려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中共의 中國本土席卷과 1949年9月 蘇聯의 原子爆彈製造에 자극받아 트루만大統領은 1950年1月30日 美國外交, 國防政策의 再評價를 지시하였다. 이 指示에 따라 國務省, 國防省 研究팀이 作成한 研究報告書는 國家安保會議의 檢討를 거쳐 NSC 68의 명칭으로 1950年4月 大統領의 裁可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⁸¹⁾ 이 研究報告書는 美國과 다른 自由守護國家들이 必要하다면 武力에 의해서라도 그들의 自由主義的 原則들은 수호하기 위해 準備해야 한다는 점을 強調하고 共產主義에 대한 對處方案을 제시하고 있다.

美国이 이러한 政策을 樹立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韓國戰爭이 發生했기 때문에 美国은 당연히 이에 대처하려 했을 것이다. 트루만大統領은 南侵의 報告를 받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北韓의 南侵은 第2次大戰을 유도한 日·獨·伊의 侵略과 그 性質이 同一하다고 생각하고 만일 共產主義者들의 侵略을 방임한다면 暴力의 規模와 參加國들의 數는 漸次 擴大되어 第3次大戰이 不可避하게 생겨날 것으로 보고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対処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하고 있다. 82)

세계, 韓國의 戰略的 價値에 대한 美国의 認識이 變했다는 것이다. 韓國의 戰略的 價値를 낮게 評價해 온 것이 당시 美国政府內의 一般的 性向이 있으나 모든 사람이 그런것은 아니었다. 美国이 蘇聯의 參戰後 뒤늦게 38線以南에 進駐하기로 결정한 것도 前駐 蘇大使 해리만 (W. Averell Harriman) 같은 사람의 韓國 및 滿州 進軍주장을 無視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後 美国은 中国本土가 共產化되고 美蘇間의 對立이 不可避해지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日本의 再成長과 日本의 對共牽制役割에 큰 期待를 걸게 되었다. 日本 및 沖繩基地의 安全을 위해서는 韓國의 戰略的 價値를 높이 評價하지 않을 수 없었다. 日本은 韓國戰爭이 일어나자 釜山赤旗論등을 내놓고 韓半島事態에 깊은 關心을 나타냈듯이 韓國安保를 日本安保에 직결시켰다. 트루만大統領도 이점에 대해 " 韓國에 있어서의 共產主義者들의 勝利는 붉은 軍隊와 飛行機를 동원, 日本을 쉽게 攻擊할 수 있는 距離에 配置

하게 될 것이며, 오키나와는 兩面攻撃에 노출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83)

이러한 여러 가지 要因의 복합적 作用이 美國의 即刻的 參戰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脚 註 (第1章)

- 1) 李昊宰, 韓国外交政策의 理想과 現實, 1945~1953, 法文社, 1969, pp.229-230
- 2) 韓國戰爭이 勃發하기前 이미 그리스事態, 中國內戰등에서 東西兩陣營間의 衝突이 있었으나, 戰爭의 要件을 갖춘 兩勢力의 武力 衝突은 韓國戰爭이 最初의 일이라 할 수 있다.
- 3) 合同通信社 調査部訳編, 알타秘密協定, 1956, pp.309-310.
Department of State, Korea's Independence, Washington D.C., G.P.O., 1947, Annex II, P.17, Kim Chum-Kon, the Korean War, Kwangmyong Publishing Company, Seoul, 1973, P.15
- 4) Max Beloff, Soviet Policy in the Far East 1944-1951,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p.156
- 5) 美蘇共同委員會의 經過에 대해서는 다음의 冊參照. Kim Chum Kon, op.cit., pp.21-24, 그리고 李昊宰, op.cit., pp.161-187
- 6) 유엔總會決議內容은 U.N, General Assembly, Official Record,

Second Session, September 16 to November 29, 1947, pp.16

-18, 및 Kim Chum-Kon, op.cit., pp.25-26 참조

7) Ibid., P.33

8) 蘇聯은 美蘇共同委員會에서 1947年8月26日 美蘇兩軍撤收를 주장한데 이어 9月26日에도 같은 內容의 提案을 했는데 이 提案에서 蘇聯側은 韓国人들은 " 聯合國의 干涉이나 支援없이 그들 自身이 그들自身的 政府를 세울 수 있는 機會" 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蘇聯의 信念이며, 따라서 美蘇兩軍은 早速히 撤收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Foreign Ministry, The Soviet Union and the Korean Question, 1945-1948. Moscow, 1948, p.46.

Kim Chum-Kon, op.cit, p81.

9) Department of State, the Conflict of Korea, Washington D.C., G.P.O., 1951, p.5

10) Kim Chum-kon, op.cit., pp. 36-37

11) Ibid., pp.47-48

12) 大韓民國國防部政訓局戰史編纂會, 1951年10月15日刊, 韓國戰亂-年誌, 第一部 戰鬪概況(A 33) 參照

13) Kim Chum-Kon, op.cit., pp.50-51

14) New York Times, May 6, 1949, p.7

Kim Chum-kon, op.cit., p.51

薛鎮轍 共產軍이 이렇게 南侵準備를 하였다. (共產主義問題研究,

韓國反共聯盟刊, 1964年6月) p.7

15) New York Times, Moscow, March 23, 1949, p.7

16) Krushchev Remembers, Boston, Little, Brown and Co., 1970,
pp.368-369. Kim Chum-Kon, op.cit, pp.49-50

17) Harold C. Hinton, Communist China in World Politics, 1966
p.207

18) 中蘇條約前文에는 中蘇兩國의 "友好 및 協力を 強化하여 日本
帝國主義의 復活과 日本의 侵略 또는 侵略行爲에 對해, 그리고
어떠한 形態로든 日本과 聯合하는 國家의 侵略을 共同으로 防
止"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9) Max Belott, op.cit., pp.255-256

20) 트루만大統領은 1950年1月5日 台灣에 對한 不干渉을 밝혔으나
한편 議會는 1月末 2,800萬弗의 國民政府經濟援助案을 통과시
켰다.

21) Donald S. Zagoria, "China's Strategy- A Critique",
"Commentary", Nov. 1965

22) D Papers, II, November 26, 1956, pp.128-129, Quoted by Dall-
in, Soviet Foreign Policy After Stalin, p.87

Kim Chum-Kon, op.cit., pp.60-61

23) Yen Shao-shan, "An Outlook on World War III, "Kaizo"

Tokyo, September 1950, p.35. Kim Chum-Kon, op.cit., p.61

24) 상세한 內容은 Kim Chum-Kon, op.cit., pp.70-73 참조

- 25) 유엔第5次總會에 提出한 유엔韓國委員團報告書 第二部 第四
A (二) (183)
- 26) Ibid., 第一部 第一章 A (8)
- 27) 이러한 事實은 당시 同使節團의 一員으로 北韓에 파견되었던
카리노프中佐가 밝힌 것이다.
Kyril Kalinov, " How Russians Built North Korea Army "
"the Reporter" , September 26, 1950, p.4, Kim Chum-Kon,
op,cit., pp.52-54
- 28) Kyril Kalinov, op.cit., p.4 and p.10
- 29) Ibid., p.5
- 30) 駐韓國聯合軍作戰報告 第四号 (1950年 8月 16日 ~ 8月 31日), 韓
國戰亂一年誌 第三部 文獻篇 3 , 國際關係 (C 276)
- 31) Ibid.
- 32) 韓國戰亂一年誌 第一部 (A 33), (A 112) 참조
- 33) 大同新聞, 1949年 1月 23日
金点坤, 韓國戰爭과 勞動黨戰略, 博英社, 1974, p.94
- 34) 金九, 金奎植은 1948年 2月 6日 南北協商案을 유엔韓國委員團에
提出하고, " 3千万同胞에게 泣訴하노라 " 라는 聲明을 發表하였다.
大檢, 左翼事件實錄 (1), 서울, 1965, p.101.
金点坤, op.cit., pp. 100-101
- 35) The Soviet Union and the Korean Question, p.69
Kim Chun-Kon, op.cit., p.38

36) Ibid., p.39

37) Ibid.

38) 예컨대 麗順叛亂당시 叛亂을 일으킨 第14聯隊에는 南勞黨 全羅南道 軍事指導員이 파견되어 있었다. 北傀는 이 事件이 發生했을 당시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 들였으나, 6.25南侵이 실패로 돌아간후 旅順叛亂은 南勞黨極左冒險主義者들이 美帝國主義를 위한 間諜行爲로 "南半部 民主力量"의 파괴를 위한 것이었다고 내세워 朴憲永등 南勞黨系列을 肅清하는 구실로 利用하였다.

金点坤, op.cit., pp.188-204 참조

39) Ibid., p.228

40) 金日成은 戰鬥命令 第1号를 6月22日에 發하였다. Kim Chum-Kon, op.cit., pp.298-310참조

- 41) Truman, Memoirs of Harry S. Truman, vol. II. "Years of Trial and Hope", New York, Doubleday & Co., Inc. 1965. P. 317
Gen. Albrecht C. Wedemeyer, Wedemeyer Reports, New York, 1948. P. 348
- 42) Sir Arthur Bryant, Triumph in the West 1943-1946, Based on the Diaries and Notes of Field Marshal The Viscount Alanbrooke, London, 1959. PP. 508-511
- 43) The Entry of the Soviet Union into the War against Japan, Military Plans, 1941-1945, Dept. of Defense Monograph, Washington September 1959. PP. 50-51
- 44) Truman, op. cit Vol. 2, p. 317
- 45) Ibid, Vol. 1, Year of Decisions, New York, 1955. pp. 432-4, 444-5
Hearings before the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81st Congress, 1st Session, Washington, 1949. pp. 121-140
- 46) Kim Chum-Kon, op. cit PP. 17-18
- 47) Ibid. PP. 18-19
- 48) Walter Millis and E. S. Duffield ed., The Forrestal Diaries, New York, 1951. P. 273.
Carl Berger, The Korean Knot, A Military-Political His-

- tory, Philadelphia, 1957. P. 89
- 49) Forrestal Diaries. OP. cit, PP. 321-322
- 50) Military Situation in the Far East; Joint Senate Committee on Services and Foreign Relations Hearings, 82nd Congress, 1st Session. Washington, 1951. PP. 2008-9
(以下 Hearings로 略述)
- 51) Hearings, PP. 1988-90.
Truman. op. cit., Vol. 2. p. 326
- 52) Department of State. The Conflict in Korea, Washington D.C. G.P.O. 1951. p. 5
Kim Chum-Kon. op. cit., P. 36
- 53) Ibid.
- 54) Hearings, PP. 2112-3
- 55) Hearings, P. 2327
Truman. op. cit., Vol. II. P. 325
- 56) Kim Chum-Kon, op. cit., PP. 25-26
- 57) Ibid., PP. 26-27
- 58) Ibid., P. 39
USSR Embassy to the U.S: USSR Information Bulletin, October 6, 1948
- 59) Kim Chum-Kon, op. cit., PP. 40-41
- 60) 6.25 前夜 美軍撤収 國務省 1949 年 極備文書公開, 韓國日報, 1977 年 4 月 20 日
- 61) 당시 公開되지 않았던 美國務省 極秘文書에 의하면 美陸軍省이 1949 年 6 月 27 日에 作成한 研究報告書에서 그런 可能性을 檢討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韓國日報, 1977 年 4 月 24 日
- 62) 韓國日報, 1977 年 4 月 20 日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反論이 있다. 맥아더將軍은 1956 年 自身은 당시 잘 武裝되고 充分한 힘을 가진 10 個韓國軍師團을 創設한 後에 美軍을 撤収시키도록 권고했다고 말하고 있다.

Major Gen. Charles Willoughby and John Chamberlain,
MacArthur 1941-1951, New York, 1954, p.355

63) 韓国日報, 1977年4月20日

64) 韓国日報, 1977年4月20日

65) 朝鮮日報, 1949年4月19日

66) 韓国日報, 1977年4月21日

Robert T. Oliver, Syngman Rhee, The Man Behind the Myth,
New York, 1954, pp.295-6

67) 韓国日報, 1977年4月21日

68) 韓国日報, 1977年4月24日

69) 韓国日報, 1977年4月24日

70) U.S. Congress, House, th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Hearings, Korean Aid, 81st Cong., 1st Sess., 1949, pp.
88-89

李昊宰, op.cit., pp.287-8

71) Ibid., pp. 289-291

72) Ibid., pp. 293-295

73) Ibid., p. 297

74) 韓国戦乱 - 年誌, p.A33

75) Hearings, op.cit., 1811-20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January 23, 1950, pp.
111-116

- 76) Ibid., pp. 3210-14
- 77) Ibid., pp. 1991-2
- 80) Department of State Bulletin, July 3, 1950, pp. 12-13
- 81) Caben phillipe , The Truman Presidency : The History of a Triumphant Succession, New York Macmillan co., 1966, pp. 305-398
- 82) Truman, op, cit., Vol. II pp. 332-333
- 83) Ibid., p, 337

脚 註 (結 論)

- 78) 맥아더將軍은 앞서도 보았듯이 滿洲, 韓國, 北中國이 蘇聯의 手中에 들어가는 것은 不可避한 것으로 인정하려 했다.
- The Entry of the Soviet Union into the War Against Japan, Military Plans 1941-1945, Dept. of Denfense Monograph, Washington, September 1955, pp. 50-51
- 79) 韓國日報, 1977年4月24日
- 本論文 第2章 第2節 참조